

ANNUAL REPORT 2010

2010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ANNUAL REPORT 2010

2010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

1 시 _ 떫은 생
2 인사말
4 걸어온 길
14 2010년을 말한다
18 살림살이 보고
23 활동보고
71 사진으로 보는 2010년
74 통계로 보는 희망제작소
80 회원재정센터
98 희망의 별
108 단행본 & 자료집



떫은 생

봄이 왔다 나는 설익은 약속처럼 헤어지기 바빴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여린 감들
구부러진 길 끝에 앉아 나는 태양의 부피를 재곤 했다
내 심장에 수혈하는 햇살 바늘
여름부터 검은 바늘 자국이 따끔거렸다
아프지 않을 때만 감들이 보였는데
감들의 낯빛은 점점 태양을 닮아 갔다
새부리에 쪼인 감들은 유독 붉디붉었다
감들은 속곳을 전부 드러낸 채 떨어지거나
가까스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새들이 빼먹지 못한 감씨가 얼핏 보이곤 했다
몸을 눈부시게 열고도 길에서 떠날 수 없는
반쪽짜리 생, 그 감은 한번 꽃피자 입을 쫙 벌리고
뿌리에 달라붙은 눅눅한 어둠까지 감아올렸다
어둠은 점점 바깥을 달콤하게 부풀리며
심장에 몰려와 단단하게 여물어 갔다
눈이 내리자
쭈글쭈글한 감들이 서둘러 햇볕을 쬐러 나왔다
더는 빨아들일 어둠이 없어서 바깥을 컴컴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끝내 어둠에 덮여 어둠 속에 들어간 늙은 감들이
떫디떫은 심장을 남겨 놓았다
다시 봄이 왔다 나는 어둠을 빨아들이기 위해
가지 끝으로 옮겨 앉았다

- 윤석정(시인,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

진짜 희망에는 지혜와 용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 창 국
희망제작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이 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한파가 몰아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상기온이라 하는데 이제 정상기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기후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변덕을 부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물 쓰듯 하면서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포탄이 오가면서 연평도 주민들은 창졸 간에 이재민, 실향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 포탄이 집마당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면서 정말 전쟁이 날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전쟁이란 꼭 이성적인 제어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긴장과 대립이 전례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로 오기만 부려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남북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오랜 시간 인내심과 포용력을 갖고 신뢰를 쌓아야 풀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까지 떠돌아 농가는 절망 상태입니다. 석 달 넘도록 구제역이 끝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산채로 생매장되었습니다. 가축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가 우리 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떤 경로로 퍼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대책이라는 게 백신 주사를 놓거나 소독약을 뿌려대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장식 대량축산 방식과 과도한 육식문화에 대해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실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역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길 간절히 원하고, 대량축산에서 벗어나 소규모 순환 농법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에너지를 아껴 쓰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활동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주민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대규모 독점 경제양식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난 5년을 돌아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고, 의욕보다 성취가 초라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내세웠던 여러 목표들,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를 혁신하고, 공공리더들의 성장을 돕는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평하자면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무겁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고단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는지, 우리의 좌표와 활동 방식이 더 큰 어젠더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서로 돕는 작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순기능을 하였는지 냉엄하게 성찰해 봅니다.

성찰 속에 얻는 것은 교훈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 잘해야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제 명실상부한 회원들의 조직입니다. 풀뿌리 회원들의 회비가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그 폭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체질이 변화했다면 역할이 그에 맞아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사구시의 민간 연구소, 시민들이 움직이는 연구소, 희망을 만드는 곳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습니다.

춥고 힘든 계절이 지났습니다. 모두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네 삶이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시기가 있으면 짧은 봄처럼 위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계절의 심상한 오고감 속에서 순환과 반복, 곡절과 변화를 배웁니다. 희망도 이러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거짓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짜로 지어내는 것이지요. 진짜 희망을 만들려면 큰 지혜와 용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길

The History of Hope Institute 2005 ~ 2011. 3

2005 씨앗 뿌리기

08.08 희망제작소 설립 제안
09.05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1차 회의
10.05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1.04 준비위원회 3차 회의
12.01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사무실 입주(준비위 해소, 연구원 5인 상근 시작)
12.21 연구기획위원회 1차 회의

2006 도전의 시작

01.09 연구원 1기 공채
01.19 목요포럼 시작, '미국의 싱크탱크를 가다'
02.09 연구원 워크숍(제주도), 부서별 자문위원회 구성, 뿌리포럼 등 내부 세미나
02.25 희망제작소 창립 발기인 총회
03.06 전국 순회 지역연석회의
03.23 목요포럼 '세계 싱크탱크의 흐름과 삼성경제연구소의 경험으로 본 성과와 한계'
03.27 희망제작소 창립
창립기념 사진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희망씨' 개최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개최
사회창안센터 시민참여 아이디어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시작
대안센터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작
04.04 미국 싱크탱크 방문
04.14 연구원 워크숍(천리포 수목원)
04.23 일본 지역만들기 관련 단체 방문
연구원 2기 공채
희망제작소 CI 확정
05.01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시민 아이디어 공모

2006

05.03 세미나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개최
박원순 상임이사 '내 고장 희망찾기' 지역순례 시작
05.30 희망모울 '한강, 그 흐름을 네트워킹하라' 개최
06.15 시장학교개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심볼 디자인 공모
지역연구사업 공모
희망모울 '5 · 31지방선거, 그 희망의 뿌리를 찾아서' 개최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시민참여프로그램 '누리술래단' 모집
07.21 희망모울 '한미 FTA,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최
07.22 조례연구를 위한 워크숍
07.23 일본 싱크탱크 방문
07.26 누리술래단 1기 활동보고회
07.28 사회창안센터 1기 시민평가단 위촉
08.01 사회창안센터 '고급 관용차 문제 캠페인' 시작
08.08 현대기아자동차 사회공헌 컨설팅
09.05 희망제작소 부설 세계공원연구소 창립
09.14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창립
09.29 희망모울 '천재 그리고 인재,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10.11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1차 워크숍
10.16 사회창안센터 '더 좋은 수학여행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0.23 희망아카데미 '순천시 공무원 학교' 개최(200명)
11.01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2차 워크숍
11.06 글로벌브레인투데이 웹진 준비 1호 발간
11.15 사회창안센터 2기 시민평가단 위촉
11.20 세계공원연구소 '시티 다큐' 세미나
대한생명과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협약 체결
11.21 한일 컨퍼런스 '지역만들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개최
11.23 '우리시대 희망찾기' 7개 영역 연구진 회의
11.24 사회창안센터 와글와글포럼 '유통기한 표기 개선' 개최
11.25 외국인, 재외동포 객원연구원(희망벗들)을 위한 오픈하우스
12.01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웹사이트 아이템 공모
사회창안클럽 첫 모임, '사회창안상' 시상식
12.08 사회창안센터 시민평가단 총회
12.13 자치재정연구소 설립을 위한 3차 워크숍
지역연구공모사업 최종 자문회의
12.15 2007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원 워크숍
12.18 사회창안센터 임산부 배려 길거리, 온라인 캠페인 시작
사회창안센터 '어린이의 권리' 신장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2.19 희망제작소 정기 이사회
희망지역만들기 장흥 '슬로우월드' 주민 설명회
12.20 사회창안센터 제2회 와글와글포럼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에서 여성피해 문제' 개최
12.21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송년회

2007 전진, 전진, 전진!

01.05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 선언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방송 캠페인
01.10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시작
01.11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01.24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희망아카데미 1기 의원학교
01.30 간판문화연구소 창립
01.31 지방의원학교 개최(1박 2일)
2006 사회창안 아이디어 총결산 시상식
02.05 해피시니어 자문위원 위촉식
02.14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웹사이트 오픈
02.28 자치재정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03.01 금강산 워크숍
03.08 KBS 시청자 칼럼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희망제안' 방송 시작
03.14 홍익대 · 아름지기 · 희망제작소 공동진행 '공공디자인 컬로퀴엄' 시작
03.18 지하철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마감
03.21 제1회 조례연구소 월례포럼 개최
03.24 재난관리연구소 1차 준비위원회
03.27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방문의 날' 개최
03.28 1000번째 프러포즈, 사회창안상 시상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04.10 희망제작소 · 프레시안 공동기획 '박원순의 희망탐사' 연재 시작
04.11 재난관리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04.20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04.26 자치재정연구소 '국가재정' 토론회
04.26 조례연구소 2차 월례포럼
05.01 '희망순천 2020' 마인드 교육 시작
05.08 한국일보 · 희망제작소 · 행정자치부 '국민제안 민관공동 프로젝트' 협약
05.14 희망제작소 · 충청남도 '포괄적인 협력과 컨설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05.15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행자부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포럼
05.17 제1회 자치재정월례포럼
05.25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 뿌리총서(5권) 출판기념회, 강연회

2007

2007

06.04 소기업발전소 창립 준비를 위한 1차 운영위원회
06.05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호민관클럽' 결성식
06.07 자치재정연구소 월례포럼
06.19 제1기 간판디자인학교 개최
와글와글포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문제'
06.30 일본희망제작소 창립식
07.05 자치재정 월례포럼 '지역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분석'
07.09 소기업발전소 창립식
제1기 해피리포터 양성 워크숍개최
07.10 강원도 정선군 지역리더 아카데미 일본 연수
07.19 농촌희망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
08.01 재난관리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08.05 '꿈의 대화' 아름다운 전시회 후원
08.28 전국 NPO 리더를 위한 제1차 워크숍
09.10 제1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09.12 (주)동훈 기증 '달리는 희망버스' 발진식
공공리더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공공디자인학교 출범
09.18 노원구 공무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포럼
09.21 한겨레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보행권을 되찾자'
10.19 농촌희망본부 '농촌이주 도시민과 지역주민 하나되기, 화합과 상생의 길' 세미나
10.25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연속 강좌 시작
10.27 좋은간판상 · 간판별동대 '9월의 간판' 선정
11.02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 강좌 시작
11.05 사회창안센터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이벤트 시작
11.08 재난관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재해구호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협력체계' 개최
11.21 행자부 · 희망제작소 공동 지역홍보센터 개관
11.28 소기업발전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CSR 혁신전략' 국제포럼
11.29 해피시니어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심포지엄
12.10 2007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
12.20 제1기 해피리포터 수료식
사회창안센터 송년의 밤
12.2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개최

2008 성장통

01.01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김대립)
01.08 제1차 희망소기업 충전식
01.17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박석무)
01.22 지역희망찾기 시리즈 8권 완간
01.24 정부조직개편 긴급토론회
01.25 세계도시탐방단 발대식
02.13 '세계지역재단 현황과 지역재단의 미래' 세미나
02.19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세미나
02.21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천호균)
03.19 '새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긴급토론회
03.25 E-민주주의 포럼 '세계를 바꾸는 블로그, UCC'
03.26 '한국형 지역재단을 모색한다' 세미나
03.27 희망제작소 창립 2주년 기념식
04.01 소시지팩토리 강연 '세계 MBA는 소셜벤처를 주목한다' (이철영)
04.08 제2기 해피리포터 발대식
04.17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양희규)
04.22 일본 공공디자인 현장 투어
04.23 '풀뿌리 지역재단이 희망이다' 강좌(윤정숙)
04.24 '46점짜리,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긴급토론회
04.28 '강진군 물결푸른 풍경 만들기' 컨설팅 보고회
04.29 E-민주주의 포럼 '한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계와 비전'
05.14 행복설계아카데미 4기 개강
05.16 희망펠로우 1기 오리엔테이션
05.22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방안' 전문가 토론회
05.23 소시지팩토리 사회적 기업가 5차 세미나
05.26 제1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05.28 '우리시대 공공리더 9인9색' 연속강좌(윤정숙)
05.29 불만합창단 조직을 위한 설명회
06.03 자치재정 월례포럼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와 쟁점'
06.20 좋은시장학교 1기(39명) 모집
07.16 '우리시대 공공리더 9인9색' 연속강좌(안병옥)
07.21 노원구청 · 희망제작소 공동포럼
07.22 호민관클럽 창립
E-민주주의 포럼 '지방정부 전자민주주의를 해부한다'
07.24 통번역 자원봉사단 희망고리 1기(30명) 모집
08.15 사회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08.22 한일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
08.27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창립 포럼
08.28 호민관클럽 시민창안 1호 법안 입법 발의

2008

09.02 삼선자치단체장 포럼(임수진)
09.11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김성훈)
09.18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09.22 공공디자인 유럽연수(영국, 독일)
10.06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은 가능한가' 특강(존번)
10.08 사회창안주간, 사회창안 국제회의
10.11 불만합창단 페스티벌
10.16 '글로벌사회에서의 위기관리' 학술회의
10.21 제2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10.28 아시아 사회적 기업 활동가대회 공동 개최
11.06 2008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 대상 시상식
11.11 제4회 공공디자인전
11.14 '수도권 규제완화-공멸인가 경쟁력 강화인가' 긴급토론회
11.25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 심포지엄
11.26 2008 경기 간판디자인학교
12.01 후원회원 감사의 밤
12.04 에너지 전문가 테드 플래니건 특강
12.06 소시지팩토리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12.11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이태근)
12.18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이영혜)

2009 긴 터널을 지나

01.02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코디네이팅
01.06 4회 연속 신년특강 시작(신영복 · 도법 · 장하성 · 윤여준)
01.12 해외연사초청강연 시작(6회)
요코하마 한눈에 보기
01.14 통영시 제1회 이순신 아카데미
01.16 완주군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01.21 완주군 지역특화 소기업지원 컨설팅연구용역
01.22 행복설계포럼 시작(8회)
행정체계개편 종합토론회 시작(전국 8개 지역 순회)
02.03 2차희망소기업 충전식(17개 기업)
02.05 월례대화마당 시작(6회)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강좌 시작(8회)
02.10 강북구 혁신선도 창의역량 강화 교육
호민관클럽 현판 및 아이디어 전달식

2009

02.24 불만합창단 2기 모집
02.27 2기 좋은시장학교 개강
3차 희망소기업 충전식(16개 기업)
03.04 희망제작소 · 국회도서관 학술정보 상호협력 조인식
03.07 1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일본국제교류기금 공동주최)
03.11 1기 화성시 공공디자인학교
03.18 창립 3주년 기념 연속강좌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새로운 상상력' 시작(5회)
03.19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연속강좌 시작(3회)
03.24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그래도 나는 희망한다'
03.27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남양주 시민참여행정 6급 팀장교육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04.02 3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안철수의 좋은 MBA' 개강
04.03 희망제작소 · 마포구 포괄적 협약 체결
04.08 제9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04.14 자치단체장 해외연수 '저탄소 녹색성장, 일본도농현장을 가다'
04.20 남양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04.21 호프메이커스클럽 창립식
04.25 사무실 이전(수송동 → 평창동)
04.29 남양주 시민참여행정 7, 8, 9급 교육
05.01 좋은시장학교 지피지기 캠프
05.07 국제세미나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05.09 1기 모금전문가학교 개강
05.13 '21세기 일본 주민참여형 지역디자인을 이야기한다' 강좌(후지하라 케이요)
05.18 기후변화학교 '기후변화 대응의 현장을 가다'
06.04 희망제작소 집들이
NPO 정보센터 개소식
06.09 희망제작소 · 남양주시 유기농업 테마파크 조성 양해각서 체결
06.11 순천시 녹색시민학교
06.16 희망도레미 입주식
06.30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서비스업 및 공공부문) 구상
07.13 4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07.16 한국토지공사 동탄(2)신도시 저탄소도시 도입 연구
07.31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
08.02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08.11 NPO 정보센터 생생토크
08.17 연구원 워크숍 (순천, 광양, 곡성)
08.21 1기 NPO 경영학교 개강
09.03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09.05 아오키교수와 함께하는 그린투어리즘 컨설팅 투어(순천, 서천, 고령)
09.10 10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09.11 사회창안센터 '숨은보석찾기 사업' 결산보고
09.17 마포구 창의혁신 토론패널 워크숍
09.18 3기 좋은시장학교 개강

2009

09.21 2기 화성시 공공디자인학교
10.06 온갖문제총서 CSI(Citizen for Social Innovation) 오리엔테이션
10.12 11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10.20 시흥시 공공디자인학교
10.22 창녕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개발 연구용역
10.24 2기 모금전문가학교 개강
10.27 5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남도삼백리길 연구용역
10.28 공공디자인학교 '도시재생을 고민하다'
10.29 순천시 커뮤니티비즈니스 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로컬푸드'
10.30 소셜디자이너 한 · 일 워크숍
11.03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총서 28권 완간기념 출판기념회
11.06 민들레사업단 출범식
11.09 2009 사회창안대회 '사회를 DIY 하라' 아이디어 접수 시작
11.11 희망제작소 · 인텔코리아 아시아 NGO 및 지역사회 지원 양해각서 체결
11.13 4기 좋은시장학교 개강(부산)
11.19 칠곡군 평생학습마을 미래구상학교
11.21 사회혁신기업가 아카데미 개강
11.25 전라남도 간판디자인학교
12.09 사진전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개막
12.11 희망제작소 후원자의 밤
12.16 2009 해피시니어워즈 시상식
순천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워크숍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해와 적용'
12.22 1004클럽 출범식

2010 다시 출발선에서

01.02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코디네이팅
01.15 2009 사회창안대회 '사회를 DIY 하라' 결선대회
사진전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부산 전시 개막
01.23 모금전문가학교 수시강좌 '마케팅으로 배우는 비영리모금전략과 온라인 모금사례'
01.28 행복설계포럼 시작(9회)
2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사회적 기업의 자립은 가능한가'
03.11 국제 심포지엄 '도시, 정원을 꿈꾸다'
03.12 2010 지방선거 핸드북 발간
03.13 3기 모금전문가학교 개강
03.16 12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03.19 6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03.21 희망별동대 1기 활동 시작

2010

03.23 2009 사회창안대회 최종 결과발표회
03.27 희망제작소 창립 4주년
04.13 시니어 1인 미디어 교육 '지혜를 포스팅하라' 1기 개강
04.21 도시재생 강연 '공공의 기억, 문화라는 옷 입기' (신혜란)
04.23 2기 NPO경영학교 개강
04.28 커뮤니티재생 종합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연구 4차년도
04.30 뿌리센터 4회 연속세미나 '도시재생, 철거와 재개발을 넘어' 시작
05.12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 발대식
05.15 평택시 평생평소시범마을 만들기
05.16 일본희망제작소 NPO법인 인증 기념행사(도쿄)
05.21 6.2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약 1차 투어(1박 2일)
05.26 6.2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약 2차 투어(1박 2일)
05.28 강연 '하워드, 홍콩을 큐레이팅하다' (하워드 챈)
06.05 직장인 행복설계아카데미 '퇴근 후 Let' s' 1기 개강
06.16 제2회 시장학교(1박 2일)
06.18 소셜이노베이션캠프 36hr(2박 3일)
07.10 7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08.04 4회 연속세미나 '커뮤니티비즈니스, 희망의 싹을 틔우다' 시작
08.10 한국제분 시설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08.24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학교(부산, 1박 2일)
09.01 울산고용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09.02 제1회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미트 개막(희망제작소 · 인텔아시아 공동주최)
09.06 13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종로구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시작 (6회)
09.07 목민관클럽 창립총회
09.09 인천시 간판디자인 클리닉
09.11 강연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경희대)
09.17 목포시 역사문화의길 기본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
09.18 중구 자치역량강화사업
09.28 종로구 자치역량강화사업
09.30 은평구 참여예산학교 개강
10.05 지역답사 '반가워, 커뮤니티비즈니스' (1박 2일)
10.10 희망별동대 2기 활동 시작
10.19 시니어 1인 미디어교육 '지혜를 포스팅하라' 2기 개강
10.20 목민관클럽 핀란드 · 영국 연수(24명)
10.28 과천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0.30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10.31 오거리 문화의길 시범가로 조성 마스터플랜
11.01 도봉구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직원 열린교육(3회)
11.02 시흥시 정왕본동 마을이름찾기 사업
11.03 한일포럼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개최
11.09 부천시 창의적 조직변화를 위한 6급 직원 워크숍(2회)
11.17 청년 사회적 기업가 한일 교류 프로그램 '프로젝트: 영 챌린지' (3박 4일)
11.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지부 지역특화과정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2010

11.30 2010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축제 (서울시교육청 주최 · 희망제작소 주관)
중구 동고동락 프로젝트
12.02 수원시 창의역량조직 강화를 위한 워크숍
12.07 희망제작소 · PPS 파트너십 체결
강연 '살아있는 장소 만들기' (PPS 대표 프레드 켄트)
12.09 후원회원의 밤
12.10 영국 시니어 관련단체 탐방기 '한국 젊은이, 영국 시니어를 만나다' 발간
12.11 8기 소셜디자이너스쿨(SDS) 개강
12.12 강연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전북대)
12.15 2010 해피시니어어워즈 시상식
12.17 강연 '사회적 기업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타니모토 간지)
12.23 온갖문제총서 1권 '저 아저씨 이상해요' 발간
12.28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완주, 1박 2일)
12.31 강동구 향토자원조사
고양시 민선5기 고양 로드맵
부안군 상수도구역 마을계획

2011

성장에서 내실로

01.02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코디네이팅
01.12 여행사 공공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
01.24 수원시 화성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기반조성 연구
01.26 순천시 웃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01.31 자료집 '지방정부 인수위원회' 발간
02.12 4기 모금전문가학교 개강
02.15 희망제작소 · 인텔코리아 NGO 역량 강화 지원 양해각서 체결
02.16 비서 & 비서실장 학교(1박 2일)
02.17 3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02.19 2010 수원 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결선대회
02.24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리 동네를 살리는 수만 가지 상상' 결선대회
03.05 강연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경기도 문화의전당)
03.08 14기 행복설계아카데미 개강
03.26 직장인 행복설계아카데미 '퇴근 후 Let' s' 2기 개강
03.27 희망제작소 5주년

5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바라보다



유 시 주 희망제작소 소장

2010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시니어사회공헌, 공공리더 교육,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혁신 등의 선점 영역에서는 주목받는 성과를 내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해피시니어'에서 '시니어사회공헌센터'로 이름을 바꾼 시니어사업은 그간의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기업, 지역, 관련 기관으로 협력의 공간을 넓히면서 '시니어 사회공헌사업단 LETS' 같은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애 설계의 관점에서 퇴직 전의 30~40대 직장인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퇴근 후 Let's'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복설계아카데미 수료생들에 대한 컨설팅 역량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공공리더 교육은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승리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참여예산, 비서실장 교육 등으로 주제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48개의 지자체장이 참여한 목민관클럽을 창립하여 로컬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리더들의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행사 공공'도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 자치단체의 용역, 컨설팅, 교육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완주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출범시키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아이디어 현실화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전환한 사회혁신센터는 수원시와 시민창안

대회를 여는 등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Social Innovation Camp)', '온갖문제 총서' 등 시민참여의 영역과 방법론에서 새로운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업턴(upturn)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소기업발전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하나희망재단과의 협력이 무산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던 소기업발전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기대어 어렵사리 활동을 이어오다가 하반기 들어 청년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희망별동대' 프로그램을 안착시켰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착한 전문가 클럽도 재정비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1천개의 직업' 행사는 여러 지역을 돌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큰 관점 아래, 지자체와의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들을 길러내는 SDS,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모금전문가학교, NPO 경영학교도 확고히 자리를 잡고 제작소 내 다른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아시아 NGO 서밋(Summit),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CB 한일포럼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도 넓혔습니다. 미국의 PPS(Project for Public Space),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 같은 좋은 단체와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재정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정기 후원회원 수가 6천명을 넘어서고, HMC, 1004클럽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후원금이 전체 재정의 40%를 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치찌개 데이, 강산애(江山愛) 등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립 5주년이 의미하는 것

2011년, 희망제작소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21세기 실학운동, 현장성과 구체성, 싱크 앤 두 탱크(Think and Do tank), 소셜디자인(Social Disign),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혁신….

우리는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목표,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창해 왔습니다. 우리는 창립 5주년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우선 '실제로 그러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5년을 보내 놓고도 '지금은 실험 중'이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

2011년, 희망제작소는
5년을 딛고 서서 질적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 안습니다.
경청하고 성찰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래서 창립 5주년 기념 주간에 각계로부터 평가와 비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희망제작소는 뭐하는 곳인가’ ‘왜 희망제작소는 국가적 의제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가’ ‘싱크탱크라면 정책이나 담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같은 오래된 질문들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희망제작소 사업계획의 키워드가 ‘질적인 전환(Critical Mass)’ 인 것도 그와 같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립 5주년을 지나며 희망제작소의 한 시기,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계질량에 다다르면 폭발적인 전환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한 시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이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질적인 전환’ 이라는 목표 아래 2011년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로서의 영향력 강화’ ‘리더십과 조직역량 강화’ ‘더 넓고 깊게 시민들 속으로’ 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이론, 늘 현실과 교통하는 이론을 만들고 싶습니다. 싱크탱크로서의 영향력은 그런 이론 속에서 확보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론은 부단히 사유하고 학습함으로써만, 그리하여 부분적이

고 제한적인 경험 속에서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끌어낼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실행(do)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서 충분히 사유할(think)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다양한 단위로 연구원들의 학습모임을 정례화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고유한 주제와 방법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더욱 힘써 희망제작소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사업 구상, 추진력, 자원동원력, 네트워크 등 모든 면에서 박원순 상임이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더 큰 변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소장단을 보강할 것이며, 부서장들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고 그 속에서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사회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2011년에는 그동안 저희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3월에서 5월까지를 창립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3월 초에 시작된 '희망나눔열차'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교감할 몇 가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생각을 듣고 회원들의 바람과 요청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과의 접점도 더욱 넓혀갈 생각입니다.

경청하고 성찰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희망제작소를 아끼고 도와주신 후원회원 여러분,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희망제작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수강자와 협력자 여러분, 함께 일한 단체와 기관의 파트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희망제작소는 5년을 딛고 서서 질적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 안습니다. 경청하고 성찰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민간연구소

2010년 희망제작소 사업의 키워드는 '바닥을 치고 오르기(Upturn)' 였습니다. 2009년 재정 위기에 따른 조직 축소 등 뼈아픈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쥔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희망제작소 재정의 약 40%가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채워졌습니다.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 후원회원이 약 6천300여 명, 고액 기부회원이 약 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후원회원 1만명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후원회원의 비약적인 확대는 희망제작소가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 없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인정받은 것일까요. 작년 12월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 정치, 사회 분야에서 희망제작소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더 단단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을 보태주신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인턴, 협력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신 그 마음,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내실 있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겠습니다.

해설

1. 2006~2010년 누적 당기순이익 561,376,429원
2. 수입 2009년 대비 3% 감소, 지출 2009년 대비 1% 감소
3. 기부금은 개인기부자들의 증가로 21% 증가
4. 사업축소, 인력감축으로 연구용역, 교육참가수익 소폭감소
5. 2010년 총 수입액 중 수익사업 수입비율은 48%, 기부금 비율은 52%
6. 급여와 임차료 감소로 운영비 2009년 대비 23% 감소
7. 외주인건비는 2009년 대비 32%감소, 사업진행비는 58% 증가
8. 2009년 대비 기업후원의 변화 미비, 개인후원들의 기부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2010년

단위 : 원

2006~2010년 당기순이익 비교

항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2,564,491,690	3,220,956,969	5,461,450,314	3,581,924,181	3,486,708,696
지출	1,416,661,480	3,811,997,917	5,433,387,069	3,567,619,184	3,524,489,771
당기순이익	1,147,830,210	-591,040,948	28,063,245	14,304,997	-37,781,075

2008~2010년 수입내역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09년 대비
기부금	2,549,327,491	1,496,070,244	1,809,047,997	121%
연구용역	2,072,490,915	1,203,588,837	868,027,579	72%
교육용역	737,460,801	686,396,718	672,883,866	98%
자료집 판매금	14,675,180	69,766,473	41,154,740	59%
광고수입	44,000,000	90,000,000	29,636,356	33%
인세수입	18,409,090	19,436,000	41,627,954	214%
임대료	1,181,818	7,090,908	7,090,908	100%
이자수입	15,277,868	5,794,254	16,721,775	289%
기타수입	8,627,151	3,780,747	517,521	14%
합계	5,461,450,314	3,581,924,181	3,486,708,696	97%
		전년대비 34% 감소	전년대비 3% 감소	

2008~2010년 지출–사업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외주용역비	647,691,132	446,139,272	304,165,725
사업진행비	1,468,147,918	1,003,955,044	1,589,489,053
사업비소계	2,115,839,050	1,450,094,316	1,893,654,778
		전년대비 24% 감소	전년대비 31% 증가

2008~2010년 지출–운영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급여	2,604,330,701	1,599,118,643	1,217,324,799
지급임차료	402,901,478	230,332,865	142,774,399
사무운영비	310,315,840	288,073,360	270,735,795
운영비소계	3,317,548,019	2,117,524,868	1,630,834,993
		전년대비 36% 감소	전년대비 23% 감소

2009~2010년 기부금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기부금 총액(A)	2,550,000,000	1,490,000,000	1,809,000,000
기업관련(B)	2,360,000,000	390,000,000	440,000,000
기업 제외(A-B)	190,000,000	1,100,000,000	1,360,000,000
기업 비중	92%	26%	25%

Smart Asan

Your Happiness in Asan City

행복도시 아산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 아산!!
365일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곳
아산으로 초대합니다











시티투어 · 관광안내 tel : 1644-2468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1:1 희망 나눔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나 법적 요건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독거노인 등을 종교단체, 기업 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 주는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오니 꼭 참여하여 작게는 한 가정을, 크게는 한 사회를 책임지는 일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내용

- **생계보조비지원**
  월 또는 격월 주기로 50만원 ~ 100만원 지원
  (후원자와 수혜자의 여건에 따라 후원금과 후원주기 탄력적용)
- **기타 건강, 교육, 가족 문제 등 전반적인 돌봄이(care) 역할**

기 간

- 결연을 맺은 시점에서 자립 할 때까지

방 법

- 1:1 결연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혜자 명의 통장에 직접입금



구청장이 직접 뛰어다니며
수혜대상자선정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언제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서대문구

아름다운 나눔

후원문의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330-1004)

Fresh Energy
OSAN

젊고 매력적인 도시 오산

- 혁신교육을 통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출산 · 보육도시
- 아시아 최대의 뷰티-코스메틱 밸리 조성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 환경도시

젊고 매력적인 도시 오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희망제작소 활동보고

뿌리센터

완주CB센터

교육센터

목민관클럽

사회혁신센터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소기업발전소



뿌리센터

다시 뿌리로, 지역에서 희망을 찾다

뿌리센터는 지역공동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다양한 연구와 실행사업을 통해 지역 희망과 대안을 찾고 있다.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지역중심, 공동체 중심의 해답 찾기는 현장중심의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쾌적하고 다양한 공공공간,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지역공동체(커뮤니티), 생명과 희망을 살리는 농촌 희망찾기, 지구와 아이들을 살리는 환경, 참여민주주의가 꽃피는 창의적 지역 만들기 등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비비정 할머니들의 마을 그림 만들기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 길, 재래시장,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 우리 역사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시개발의 저항으로 도시재생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및 참여방법론 개발, 농촌을 우리사회 보물창고로 만드는 농촌활성화 사업,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발,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연구, 창조 및 창의도시에 대한 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완주군,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되다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2008년 3월 '상호업무협력에대한포괄적양해각서(MOU)' 를 체결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택리지 프로젝트' 를 통해 완주군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를 설립 운영하고 '비비정 프로젝트' 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에 응모해 당선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완주군 덕암마을은 133억 원의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완주군은 2010년 전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비비정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즐겁고 신명나는 일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비비정 프로젝트는 지난 한해 주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마을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찾는 시간이었다. 여느 농촌마을처럼 비비정도 주민들은 고령화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며 젊은이들의 발길도 뜸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예술농활캠프, 가양주 개발 및 한옥마을 술 축제 시음회 운영, 대둔산 축제 건달할머니 식당 운영,

마을소통 디자인 프로그램, 마실학당과 전시회, 비비힐 CB학당, 부녀회 공동텃밭, 공동 과수원 운영, 마을신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때론 격렬하게 논쟁하고, 때론 신명나게 전진하고 있다. 앞으로 비비정 마을의 농가 레스토랑을 개점하고, 비비정 공방, 비비정 민요합창단, 비비힐 텃밭정원 및 생태문화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을 지키는 목포의 창의적 도시재생

창의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목포시 프로젝트(목포역사문화의길 기본계획, 한국제분 활용방안 연구, 목포오거리 기본계획)가 마무리 됐다. 개항도시 목포의 쇠퇴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진행됐고, 원도심 인근에 있는 삼학도 내 한국제분 공장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 과제들은 기존의 철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일변도의 개발사업과 달리 원도심 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지키는 재생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졸업한 목포 원도심 출신 일반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하고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프로젝트는 약 1년에 걸쳐 구체적인 지역 자원조사를 진행했고 행정, 시민단체, 시민, 거주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계획 이후 실행사업을 연결하지 못했고 초기 목표 중 하나였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모델 구현에도 부족함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이다.

종합지원센터와 기금개발을 연구하다

이제까지의 도시개발 사업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 경제 · 문화적 재생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을 실현하고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통합적인 커뮤니티 재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금을 행정과 시장, 커뮤니티가 조성하고 운용하는 방법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굴과 지원방안, 그리고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



목포의 역사문화자원과 대안

간지원조직으로서 '커뮤니티재생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 주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집수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연구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모의실험 연구를 전주와 창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의 새로운 희망 만들기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자치단체와 협력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하게 협력 사업이 논의 · 진행되고 있는 곳이 수원시와 고양시이다. 수원시의 경우 역사적 가치와 창의적 접근이 요구되는 지역(세계문화유산 화성, 서수원 농업유산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화성(華城)의 스토리텔링 자산을 찾아 향후 어떻게 이것에 기반한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할지 연구 중이며,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희망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고양시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양시 혁신정책 100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는 고양시 행정의 질적 변화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양시 민선5

기 고양 로드맵' 을 작성하여 민선 5기 4년간의 고양시정 정책 우선순위와 향후 계획, 고양시의 3대 비전 도시 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 자원찾기 사업

지역 자원을 찾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평택 평생평소 마을만들기를 위한 자원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부안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발전전략을 연구하였다. 또한 강동구의 새로운 핵심사업인 도시농업 관련 향토자원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럼과 세미나

뿌리센터는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뿌리 연구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 연속세미나(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속세미나(4회)를 진행했으며, 소셜큐레이터 하워드 챈 세미나, 신혜란 런던대 교수의 도시재생 세미나, 영국 건축사 베드제드 제로에너지주택 세미나, PPS 대표의 'Placemaking'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제행사도 기획하였다. '도시 정원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G가든쇼 정원박람회 심포지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과 2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을 진행했다. 국제교류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영 챌린지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지경부 사업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부설연구소_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

지난 한 해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는 지역문제 해결과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사업과 번역출판,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자리를 만들었다. 총 4회의 연속세미나는 매번 희망모울이 가득 찰 정도로 열띤 호응을 얻었고, 국내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둘러 본 희망의 답사에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을 개최했는데, 우리보다 앞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도입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울산, 마산 등의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시니어클럽 실무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나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희망제작소는 지역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학습과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도 지속적인 국제 · 국내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구체적인 지역의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희망의 싹을 틔우다

주민참여 활성화

희망제작소는 중심 과제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시흥시 정왕본동 마을이름찾기 사업, 서울 중구 동고동락 프로젝트, 서울 종로구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을 사회혁신센터와의 협력 아래 진행하였다.

새로운 희망찾기

지난 한해는 지역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구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의 사회 확산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많은 부분 부서 목표와 사업별 지향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드러났다.

2011년에는 지역중심, 연구기능강화,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확산이라는 틀 안에서 뿌리센터의 특색 있는 주제 발굴하기, 스토리 있는 지역 사례 만들기, 핵심지역에 집중하기, 지역 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하기, 온 · 오프라인 외부화 작업하기, 지역공헌 및 회원 프로그램 운영하기 등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희망찾기를 지속할 것이다.

완주CB센터

지역, 안에서 희망을 쏘다

대한민국 최초의 중간지원조직

완주군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외부로부터의 발전전략 대신 내부로부터 지역 활력의 동력을 찾는 커뮤니티비즈니스(CB)를 도입한다. 2007년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단체장 일본연수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처음 접한 후 완주군 신택리지사업(2008), CB학교운영(2008), 완주군 CB시범사업운영(2008~), CB지원센터설립운영연구용역(2009). CB지원조례제정(2009) 등을 통해 작년 6월, 행정과 주민사이를 잇는 자치단체 단위 전국 최초의 CB중간지



완주CB써포터즈 포럼



한-일 포럼 마지막 날
안덕마을

원조직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사업주체 양성 등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이다.

교류와 협력을 경험을 나누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 해결방법과 지속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주체는 지역주민들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난해 말 4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완주CB써포터즈클럽'을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어놓았다.

11월에는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을 통해 완주의 CB사례를 알리고, 일본과 국내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지역 청년 1천500여 명이 참여한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은 지역사회에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놓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 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지역 대학생 30여 명과 완주의 마을사업현장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씨앗이 싹트다

완주에서는 2009년부터 완주지역공동체활성화(CB)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개의 CB사업 중 7개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을 통한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헌책나눔공간 '보물섬카페', LH 공모사업 '봉동주공 느티나무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1천개의 직업'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한 '고산산촌유학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등 지난 한 해 동안 10개 내외의 CB사업모델 발굴에 주력해 왔다. 아직 초기단계라 사업주체들의 역량강화와 사업운영의 체계를 세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무엇보다 사업주체들에 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 완주CB사업은 10개 내외의 창업공동체와 예비창업공동체를 구분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 사업주체들의 준비정도, 자원활용능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공익성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현장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

작은 성과 큰 과제

그동안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크고 무거운 과제들도 남았다.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진단,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인재의 양성,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구축,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모델의 창출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교육센터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그동안 공공리더 교육에 집중했던 희망아카데미는 2010년 2월 '교육센터' 로 확대, 개편했다. 교육센터는 공공리더교육과 더불어 시민리더교육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우리시대에 진정한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지역은 사람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희망제작소다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확대 · 개편한 교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주제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준비된 시장 성공하는 리더들을 위한 제2회 시장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별 학교를 운영하여 총 13개 학교에서 1천81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10 제2회 시장학교

제2회 시장학교는 민선5기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은 도덕성과 행정윤리, 참여와 소통을 통한 리더십,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상력과 기획력 등 준비된 리더를 만들기 위한 집중교육을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다. 민선5기는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중차대한 과제를 지니고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취임한 단체장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고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리더가 요구되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학교를 열었다. 이번 시장학교는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였다. 주제별 전문가의 집중특강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운영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및 문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쌍방향 워크숍으로 운영되었다.

그중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지방행정이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모형 및 웹 2.0 세대와의 공적 정보 소통 등 여러 주제를 놓고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의 희망크리에이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희망크리에이터 학교는 공직자의 창의 · 혁신역량, 조직내부의 개인별 역량, 창발적 소통을 통한 소속 지자체의 시정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희망특강을 시작으로 희망워크숍, 상상워크숍, 단결워크숍, 드림워크숍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계별 창의혁신과 조직개발, 리더십 개발, 열린소통 등을 개인별 및 조직원 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별 희망크리에이터 학교는 1박 2일의 집중식 워크숍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한해 동안 총 4개 지방자치단체(고양 · 도봉 · 부천 · 수원)에서 실시해 창의혁신행정운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교육을 수료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조직 내부를 결속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지자체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 또한 조직 및 내적 자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교육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여 변화해 가고 있는 공직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리더 양성교육

교육센터는 교육대상자를 기존의 공공리더에서 지역시민의 리더로까지 확대하면서 지역리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학교, 주민참여예산학교, 마을리더양성학교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킴은 물론, 소통과 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리더양성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학교에서는 진정한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마을리더를 양성하고자 심화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구축을 주민들이 직접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희망제작소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행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발과 상상력 발휘를 통해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교육센터, 비상하다

교육센터는 공공리더와 지역시민사회의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우선 대상별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육주제별 교육과정을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엮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희망제작소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식 교육을 갈망하는 공공리더와 지역리더의 요구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현장에 기초한 연구와 컨설팅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교육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1년에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다.

모금전문가학교

모금의 날개로 세상을 날다

오늘날 모금활동은 다양한 매체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금활동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 기획자가 설정해 놓은 모금목표액 달성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우리시대 최고의 모금전문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모금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모금전문가학교는 타 기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모금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생은 기획서 작성부터 마케팅 기법, 커뮤니케이션 전략, 프로모션 노하우, 모금윤리, 회계 등 모금활동에 필요한 A에서 Z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이론은 물론 다양한 사례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깊고 폭넓게 배울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모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다. 모금이 필요한 분야도 특정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 등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기존에는 비영리기관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영리기관을 포함해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졌으며, 기관 주최의 모금활동은 물론 개인이 홀로 모금활동을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금전문가학교의 강점

모금전문가학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모금환경과 특별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금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0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모금전문가학교는 모금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김재춘 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 김현성 공공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등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준다. 또한 모금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학습과 함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회계 및 법률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모금전문가학교 출신의 동문들이 수강생들에게 모금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1 대 1 형식으로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매 기수별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추가, 보완해야 할 교육콘텐츠를 점검해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금전문가학교의 교육과정

모금전문가학교는 그동안 총 3기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1기 43명, 2기 53명, 3기 38명 등 총 13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과정을 수강한 졸업생들 대다수가 각 분야에서 모금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기 졸업생인 정현경씨는 모금전문가학교와 모금활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모금전문가 입문을 도와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각 기수는 조별 편성을 통해 10주의 교육기간 동안 실제 모금활동을 한다. 기부할 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모금기획과 정산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강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각 교과목의 강사들이 실제 모금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1년 모금전문가학교

2011년 2월부터 제4기 정규과정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을 비롯해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모금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금전문가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현장집중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금전문가를 양성 및 배출하고자 희망제작소가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목민관클럽

혁신과 자치 위한 목민의 산실

창립 배경

1991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20년이 경과했으나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지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행정중심의 정책, 토목 위주 사업추진, 외형적 성과주의, 환경과 원주민 주거권을 무시한 막개발 정책은 주민자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에도 심대한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별 특정정당에 몰아주기식 투표행위에 따라 자질검증이 되지 않은 단체장들이 선출된 탓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전국 230여 개 기초지방자체단체를 지원하는 정책 연구기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50명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목민관 클럽을 창립했다.

정파 뛰어넘어 생활정치 구현

2010년 9월 7일, 목민관클럽 회원 23명과 희망제작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목민관클럽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4명의 공동대표(고재득 성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노현송 강서구청장)와 감사(김선교 양평군수), 12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했고, 모임의 규약과 1차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각각 심의하였다.

이어진 기념세미나에서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발제에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위기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라고 진단하며,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세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민관클럽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들을 연구 · 개발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정당과 지역을 뛰어넘는 초정파적인 모임으로,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함께 희망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목민관클럽은 격월로 정기포럼을 개최하는데, 지방재정 유동성 문제나 혁신적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기업과 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정기포럼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 국내외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세와 동향, 회원자치단체의 동정, 모범적인 사례 등 정보를 교류하며 함께 배운다.



핀란드와 영국 연수

1차 정기포럼은 10월 20일~11월 4일까지 핀란드와 영국에서 진행했다. 회원 자치단체장 5명과 관계 공무원 19명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 추진 사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핀란드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답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실행하고 있었다.

영국은 1970~80년대 철강산업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사례와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현안들을 조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영파운데이션과 DTA(Developement Trust Association), 커뮤니티링스(Community Links) 등 중간지원조직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제2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게는 2~3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자치구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빠듯한 지방재정을 쪼개어 지역 숙원사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결재서류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해서 자정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 다녀도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발자취를 잘 살펴야 길을 잃지 않는 법. 지난 12월 28~29일, 바쁜 일정과 폭설에도 불구하고 목민관클럽 회원 11명이 전북 완주에 모여 2차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정기포럼 첫날, 민선5기 6개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에서는 각자 10분 이내의 짧은



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집약한 덕분인지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혁신 노하우, 지방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방법, 보육과 교육의 도시 추진과정, 억대 부농의 꿈 실현과정, 자전거 안전도시 추진 등 각자 쏟아낸 다양한 경험들은 서로 간의 배움과 조언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와 마을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2011년 계획

2010년 하반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기포럼과 해외연수를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에도 도시재생,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마을만들기, 평생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보교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블로그를 구축하고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해 안정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쌓아 나갈 것이다. 목민관클럽의 활동이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사회혁신 센터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디자인하라

사회혁신센터는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만든다: Do it yourself' 라는 모토 아래 시민들의 참여와 직접 행동을 통해 사회혁신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10년은 '창안' 에서 '혁신' 으로 전환한 첫 해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전개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뿐만 아니라 부서를 새로 구성해 팀워크를 다져나간 시기이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험은 지금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창조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고
>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는 능력이다

사회창안 2.0 시스템

새로운 모토에 따라 기존 사회창안 1.0 시스템을 폐기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염두에 둔 사회창안 2.0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창안 2.0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디어의 숙성과 결실이 평범한 시민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이다. 사회창안 1.0 시스템이 연구원과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시민은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에만 머물렀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직접 행동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싱글남녀들이 모여 옥상텃밭을 가꾸며 에코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이웃랄랄라' 프로젝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며 자신의 삶이나 경험을 나누는 리빙라이브러리,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위젯 개발 등이 중요한 성과이다. 한편 기획창안 시리즈를 개설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주제(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공익적인 활동 등)를 제시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SNS 등에서 논의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을 DIY 하라

2010 사회창안대회

일상의 변화를 내 손으로부터라는 DIY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창안대회를 지역버전으로 시도했다. 수원시와 협력해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직접 실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5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10개의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중 5개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장다리천 물길 지도를 만드는 '콘크리트를 벗고 녹색 옷을 입을 장다리천', 마을의 청소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동 작업을 해 나가는 '세대공감', 서로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학습하고 나누어 재능 벼룩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Let's fly 청년재능벼룩시장', 지역의 삭막한 가림막이나 펜스를 주판 형식의 메모판으로 만들어 오가는 시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알콩달콩 메모판 프로젝트',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구석구석을 답사하며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지도-퍼즐 맞추기' 등 평범한 시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일구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지금 수원에서 진행 중이다.



IT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고 시민이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

2010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

IT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고 시민이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한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 은 시민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 아이디어를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구현한다.







다음세대재단, 해피빈재단,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60여 명의 IT 기술자들이 날 밤을 새며 밥, 개발, 밥, 개발이라는 강행군 끝에 세상을 바꾸는 웹 구축물을 만들어 냈다.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온갖 정보가 담겨있는 어플리케이션 '세바퀴' , 재능을 나누고 싶은 사람과 재능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웹 사이트 '소셜人' , 예술가들이 창작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펀딩을 투자하는 웹 사이트 '창작을 위한 품앗이 펀딩' , 지역 내에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 도심텃밭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our farm' ,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십시일반' ,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기부를 유도하는 'treeing' , 재래시장 정보를 집결한 어플리케이션 '가는 날이 장날' , 안전한 버스와 친절한 기사님을 칭찬하는 어플리케이션 '친절버스' 등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모두가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식의 백과사전

온갖문제총서 시즌1

모두가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식의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CSI(Citizen for Social Innovation)가 모였다. 시민의 언어와 시민의 감성으로 이 세상의 온갖문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1년간 바쁜 생업의 시간을 쪼개 회의와 인터뷰, 자료조사, 집필 끝에 다섯 편의 수사보고서 즉, 묶음 상품과 할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노총각, 쇼핑 정복기', 정치에 무관심한 요즘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사용설명서', 예술가들의 특이하고 별난 외모를 분석한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해요', 아햏햏의 철학과 드라군 놀이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양상을 다룬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세계를 다룬 '사회복지사의 모든 것' 등을 묶었다.



연구는 박사나 교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식은 삶과 밀착해 있을 때 유용한 것이라는 정신을 실천하는 이 사업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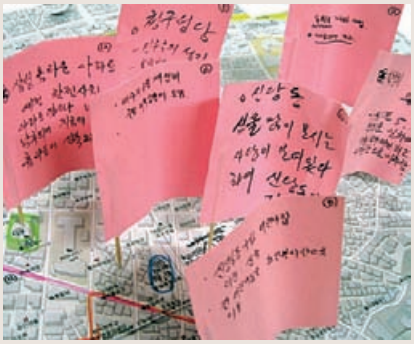


> 변화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능력을 갖출 때에만 이루어진다.

로컬이노베이션 - 종로구, 중구, 정왕동

지역 사회 리더들과 도시 공동체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변화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능력을 갖출 때에만 이루어진다. 종로구, 중구, 정왕동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주에 한 번씩 모여 강의를 들으며 사례를 분석했다.

마을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각종 워크숍을 실시하며 토론을 계속했다. 무더위를 뚫고 선진지 답사도 이루어졌다. 한동네에 살았지만 서로 잘 몰랐던 사람들이 3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치며 이웃으로 거듭났다. 이 여정 중에는 이름 없이 불려지던 마을에 이름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6개월간의 지난한 과정 끝에 다솜, 오동, 군서, 큰솔이라는 이름이 생기던 날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마을 잔치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종로, 중구의 오래된 마을들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50개가 넘는 계획들이 세워졌고 2011년 실행을 준비 중에 있다.









혁신은 정보를 숨기지 않고 빈틈없이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

ANIS - Asia NGO Innovation Summit 2010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 15개국의 63명의 NGO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2박 3일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인텔 아시아 퍼시픽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서밋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재정적 지속가능성', '네트워킹과 정보교환', '시민참여' 라는 4가지 주제에 대해 34개의 포스터세션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키노트들로는 Bunker Roy(Barefoot college), Brenton Caffin(TACSI), Francisco L. Roman(Hills governance), Mayan Quebral(venture for fundraising), Steve Lawrence(AISX) 등이 참석하였다. 국내외 언론과 관련단체의 높은 관심 아래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될 2011년 ANIS 는 아시아 사회혁신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NGO 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협력, 교육프로그램, 툴킷 개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고방식만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혁신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SDS - Social Designer School

사회혁신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SDS는 자유로운 배움터이자 창의적인 실험공간이다.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형 워크숍과 팀워크를 통해 방법론을 적용하고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소셜디자이너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민하기
2.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찰하고 탐구하는 능력 함양하기
3. 집단지성의 힘을 경험해 보기
4.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상상해 보고 기획해 보기
5. 사회혁신가들과의 진솔한 만남 경험하기
6. 직접 행동을 통해 몸으로 느껴보기
7. 혼자 하면 엄두도 안나던 아이디어와 실행을 여럿이 함께 실천해 보기
8. 나와 이웃,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소중함과 팀워크를 느껴보기

2010년에는 총 3기(6기~8기)의 SDS를 진행했고, 121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아이디어를 숙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더 강조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바 캠프, 오픈스페이스 워크숍, 리빙 라이브러리, 타임라인, 천국과 지옥게임 등 최신의 워크숍 기법들을 도입하여 적용했다.

그 결과 그 어느 기수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친환경 음식점, 에코 패션 등 소셜비즈니스 아이템이 나오기도 했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도 제안됐다. 사회 마이너리티 계층과 함께 하는 인형극을 시도했고, 좋은 소식만을 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도 했다.

혁신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혁신 2.0

올 한해 사회혁신센터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혁신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상상이 우리를 밤새워 고민하게 했다. 그중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개중에는 실패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잘해 낸 것만큼이나 실패한 것도 자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혁신센터는 앞으로도 좀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사회혁신에 대한 동향과 연구를 수집해 이론화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관련 인물을 초청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평범한 시민이 주도하는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참여 방법론을 개발에 좀더 힘을 쏟을 것이다. 혁신이 우리 삶과 좀더 밀접해 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지역적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SDS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청소년판 SDS도 신설할 예정이다. 변화의 결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













사회공헌활동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

"지금 뭐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특히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나 후배들, 친구들이 자네 뭐하나 물을 때 답을 못한다는 거, 이게 참 궁했어요."

2010년 '행복설계아카데미'에 참가했던 교육생의 소감이다. 2010년부터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이다.



단체명	회원수	특징
아름다운서당	15명	전문경영인들이 지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실무와 인성, 인문교양교육, 세대통합 모델
평택시다문화사랑봉사회	50명	경기도 퇴직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다문화 지원 단체
희망도레미	23명	기업체, 금융권 출신 퇴직자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
콩반쪽나누기운동본부	58명	북한바로알기, 마음나누기 등 사회통합 활동.
한마음공공미술단	12명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소외계층 정서지원에 기여
두레반	17명	은퇴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 비만학생 및 소외된 학생 지도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	29명	외국어, 콘텐츠 영역에 능력을 갖춘 전문직시니어들이 비영리단체 업무 지원

이들 세대는 현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자신의 직무 경력을 유지하면서 사회기여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2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 20여 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 설문조사 분석' 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4,000명 중 83.4%가 일을 그만 둔 이후에 특별한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시니어의 가치와 역할의 확대

2010년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씨앗상을 받으신 권병현님은 1998년 주중대사로 부임해 있을 때 베이징의 끔찍한 황사가 하루면 서울을 덮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2001년 은퇴와 더불어 중국 내몽고 사막에 나무 심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지금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래숲' 의 시작이다. 10년간 꾸준히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UN사막화방지협약을 통해 성공사례로 인정받게 돼, 한국토종환경NGO가 UN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 많은 전문직 퇴직자들이 권병현님과 같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바람으로 2007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덧 13기까지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은 총 396명이다. 그 가운데 약 54% 이상이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대표, 전문위원,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목할 내용은 활동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수가 늘어나고 수료한 인원이 많아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행복설계아카데미 수료생에 의해 이전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체들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직 기간도 짧고 규모도 작지만 시니어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넓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의미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가고 있다.

2010년 단체설립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큐베이팅을 통한 설립과 운영이었다. 5월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가 그것이다.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이수한 수료생이 중심이 되어 창단된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는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체계적인 기획을 통한 아이디어와 회원 모집 그리고 시니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이처럼 LETS는 인큐베이팅을 통한 단체 설립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

넓어진 교육과 깊어진 세대

2010년은 여러 변화가 시도됐던 한 해였다. 먼저 Outplacement 과정이 그것인데 늘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진행했던 교육이 희망제작소 교육장을 벗어났

다. 한국관광공사 전직지원교육, 경남도청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등 기업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교육과정이 대상자를 찾아 기업과 지역에서 진행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행복설계아카데미가 젊어졌다는 점이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직장인들로부터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바로 앞두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만큼, 30~40대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인생 후반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 이에 새롭게 시도된 프로그램이 직장인 행복설계아카데미 '퇴근 후 Let' s' 였다. 퇴근 후 Let' s는 10년 뒤를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애설계프로그램으로 30~40대 직장인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세 번째는 행복설계아카데미 전문과정이 개설돼 교육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상 ·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 전문직 시니어 1인 미디어 양성과정 '지혜를 포스팅하라!' 는 단순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 웹2.0에 기반을 둔 소셜미디어 교육을 시니어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시니어들의 욕구와 수요가 대단히 높았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 향후 시니어포털, 메타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인프라 구축이 숙제로 남아 있다.

새로운 길을 향해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문제에 대한 다수의 사례발표와 교육으로 바쁜 한 해이기도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에 여러 차례 초청되었다. 이후 관련 부처

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구체적 대안모델로 '해피시니어' 사례를 벤치마킹한 시니어사업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여러 교육기관과 단체에서 행복설계아카데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이렇듯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능력이 한국사회에서 사장(死藏)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출범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람이었다.

이제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발판삼아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활동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한다. 기존의 1인 미디어 양성과정에 머물렀던 행복설계아카데미 전문과정을 더욱 다양화하고 30~40대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확대 개편해 인력 양성의 깊이와 넓이를 함께 넓혀 갈 것이다.

또한 시니어 사회혁신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시니어들이 직접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채택된 사업은 인큐베이팅을 거쳐 새로운 활동 모델로 만들어갈 것이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 교류와 연구사업, 국제심포지엄 등 사회공헌 기반강화와 문화 확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더 이상 은퇴의 문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의 썰물 은퇴 앞에 불안해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전 세대에 걸친 생애설계 교육과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음을 본다. 이제 2011년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중고령 시니어를 포함한 시민활동지원센터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2011년 행복설계아카데미

- 14기 아카데미 : 2011년 3월 8일(화) ~ 29일(화) 매주 화 · 목 주 1회 총 7회 / 4월 5일(화) ~ 6일(수) 1박 2일 워크숍
- 15기 아카데미 : 2011년 10월
- 직장인 행복설계아카데미 : 2011년 3월 26일(토) ~ 4월 30일(토) / 총 7회

(문의 : 02-3210-4070 / 02-2031-2122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좋은 일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NPO경영학교

2009년에 처음 시작된 NPO경영학교는 1기 과정을 마치며 우리사회 NPO들이 안고 있는 여섯 가지 과제를 정리했다.

첫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라. 좋은 일을 한다는 슬로건만으로는 안된다. 좋은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Do the right things! Do the right things RIGHT!

둘째, 끊임없이 학습하라. 학습된 조직만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셋째, 재정적으로 홀로서기를 모색하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 외에 다양한 재정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도덕적 권위를 가져라. 회계는 투명하고, 인사는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섹터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NPO 간, NPO와 PO 간에 개방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여섯째, 인적자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구성원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섹터에서의 관심 확인

2010년 NPO경영학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작되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력을 갖추자' 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09년 수강생들은 NPO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에는 NPO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 NPO에 관심 있는 공무원 또는 영리조직 사람들의 참여도 많았다. NPO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단체의 존재 이유, 미션

NPO경영학교는 한 단체의 존재 이유인 사명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시작하였다. 비영리조직의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명과 비전은 착한 의도를 가진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침반과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션, 비전, 전략, 평가는 상호연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은 선명하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사업전략, 평가와 따로 분리돼서는 안된다. NPO경영학교를 통해 수강생들은 미션, 비전, 전략, 평가를 하나의 흐름을 갖고 수립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 조직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 '나는 우리 조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Case Study를 통해 컨설팅 역량 강화

NPO경영학교는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목적이므로 케이스스터디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해당 NPO의 역사, 설립 목적과 미션, 중심인물, 후원자 분석 및 전략, 설립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 를 서술해 놓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컨설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NPO경영학교를 통해 진행된 케이스스터디를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재정적 문제와 구성원의 역량문제이다. 모금, 교육훈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력유입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개월간의 학습 총정리, 컨설팅 보고서

수강생들은 3개월의 교육일정 동안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단체를 직접 컨설팅하는 보고서를 졸업과제로 제출하였다. '미션, 가치, 비전, 전략도출, 이해관계자 분석, SWOT분석, 관점 확정, 관점, 성과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행동계획, 자원계획' 등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컨설팅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NPO경영학교를 준비하며

두 차례 진행한 NPO경영학교를 통해 우리사회 비영리조직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크린할 수 있었다. NPO경영학교는 비영리조직 리더들이 '조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입문과정이라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지금까지의 NPO경영학교를 더욱 심플하게 정리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마케팅, 모금, 리더십, 홍보, 기획, 평가 등 분야별로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 발전소

새로운 경제를 향한 당찬 도전정신

2007년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희망소기업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기업발전소는 지금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기업 붐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년간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으로 소기업발전소 운영에 참여해 온 '착한 전문가' 서포터즈의 뒤를 이어 정예 연구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구성한 것은 무엇보다 큰 변화이다.



팀 구성 이후 불과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발전소는 조직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행사 주관,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산실희망별동대 2기 출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기반 구축, 한 · 일 사회적 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한 포럼 기획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년 벤처 육성의 산실

'1천개의 직업' 은 처음 희망제작소가 기획 주관한 이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사업으로 확대, 진화해가고 있다. 희망별동대는 청년 소셜벤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2011년 새로운 개념의 혁신아카데미 허브로서 질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략이다. 과거 소기업발전소의 역할이 개별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포스트 소기업발전소는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해 튼튼한 사회적 기업(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관심이 높은 자치단체들과 연계해 실천형 사회적 기업가 학교 운영,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션센터 설립,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창안대회 개최, 사회적 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재단 설립, 인접 지역과의 공동사업 개발 및 SI(Social Innovation) 클러스터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희망 씨앗들을 발굴, 육성하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기업발전소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 희망별동대를 명실상부한 인재육성 사관학교로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봄, 희망별동대 3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중이다.

혁신기업가 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인적 네트워크와 파이낸싱이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그룹인 '착한전문가' 는 소기업발전소가 보유한 인적 자산의 핵심이다. 현재 경영지도, 법무,



회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113명의 전문가 그룹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으며, 팀별 매칭방식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이룩한 작지만 큰 성과 중 하나는 미래 사회적 자본(Socail Capital)의 전신인 '희망씨앗기금'을 만든 것이다. 개인투자자에서 중견 회사에 이르기까지, 청년벤처 육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출연을 통해 만들어진 씨앗기금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초기 창업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쓰일 것이다.

소기업 생태계와 사회적 경제 블록 형성에 기여

2010년도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조직 발전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향후 소기업발전소가 사회혁신기업 지원조직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정립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생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실천 조직(Do Tank)의 산실로서 소기업발전소는 국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와 혁신기업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기업발전소는 올해 사회혁신의 본고장인 영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층 연구, 지역 개발과 비즈니스를 훌륭히 결합하고 있는 일본 CB(Community Business), SB(Social Business) 전문가들과의 교류,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서밋(summit) 개최, 다양한 풀뿌리 단체와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제3세계 소셜 펌(Social Firm) 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탐방 경험 및 교류, 협력사업의 결과물들은 자료집이나 책자 형태로 출간해 나눌 예정이다.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혁신 기업을 발굴,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기업들의 상호연대를 통해 희망 소기업 생태계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 블록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소기업발전소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이다.

희망을 현실로, 꿈을 직업으로

희망별동대 청년소셜벤처의 아이콘

사회적 기업은 혁신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희망별동대는 기존의 질서에 물음표를 던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이야말로 잠재적인 혁신가이자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이라 보고, 이들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2010년 3월 첫 발을 내딛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는 팀,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 단위의 그룹들이 희망별동대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본 교육과 현장분석, 실전프로젝트 실행 등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

희망별동대는 강의식 교육을 넘어 '현장'과 발로 뛰는 '실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만일 농촌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농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팀들은 현장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며, 사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희망별동대 프로그램에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로 손꼽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이철종 희망별동대 대장(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많은 '착한전문가' 들이 함께하고 있다. 각 팀들은 사회적 기업을 앞서 시작한 선배들과 사업계획을 논의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실전 SNS 교육, 단체설립구조와 유형 등 혁신기업가가 갖춰야할 기본 교육을 받는다.

초기 교육과 현장 탐방을 통한 사업계획서 도출,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자금지원의 기회도 갖는다. 경영지도, 법무, 회계 등 총 6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각 팀들과 짝을 이뤄 예비 기업가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준다. 청년벤처 육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씨앗기금' 은 청년들의 도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팀들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바탕으로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망별동대 프로그램을 마친 팀은 총 9개로써 1기에 3팀, 2기에 6팀이 배출되었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분야는 결코 녹록치 않은 도전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도전은 이미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1년 희망별동대는 3기를 준비 중이다.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고 믿는 패기만만한 청년들의 멋진 도전을 기대한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라

청춘비상프로젝트 1천개의 직업

이 시대 청춘의 자화상은 어떤가. 취업에 유리한 대학(원)으로 편입학을 계속하는 '에스컬레이트족',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대학을 계속 다니는 '신NG족(No-Graduation)'을 거쳐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결혼과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스펙을 쌓으면서 청춘을 저당 잡히고 행복을 유예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 그에 기반한 새로운 직업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정체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직업 개수는 약 1만5천개로 일본의 절반 수준, 여전히 대기업과 고시 합격만이 선망의 대상이다.

'1천개의 직업'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청춘비상 프로젝트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구석구석을 종횡무진하며 만난 사람들,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유망 직업들, 세상을 바꾸는 소셜비즈니스를 한데 모아 제시하고 희망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출발지는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약 4천여 명의 청년들이 김제동, 한비야,



박원순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이들이 소개하는 1천개의 직업을 직접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강연자들은 진심과 열정으로 이에 답했다. 행사장 로비에는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안내자료와 소개 패널이 비치되었고, 입구에는 청년사회적 기업 20여 곳이 부스를 마련해 동시대 청년들과 가슴을 맞댔다.

국내 최초로 '소셜디자이너' 라는 직업을 만든 박원순 상임이사가 준비해 온 슬라이드에는 1천개의 참신한 직업이 담겨 있었다. 안성고을 3만평 대지에서 2천개의 옹기를 운영하고 있는 된장공방 운영자 서일분 여사님, 버려지는 낙하산 천을 가공해 연 12만개 이상의 패션 가방을 만들어 팔고 있는 스위스의 프라이탁 형제 등의 사례를 통해 청중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는 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제대로 맞은 불화살들.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수많은 아이디어를 들으니, 이것저것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과 함께 강연장을 나서게 되었다. 젊음, 청춘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함께 들었던 많은 청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겠지?

- yes**의 참가 후기

지난 9월 첫 발을 뗀 이후 '1천개의 직업' 은 더 많은 청춘들을 찾아 강행군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완주CB센터와 함께 전북지역 청춘들을 만났고(전북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도 만났다(KBS88체육관). 2011년 3월 5일에는 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경기도 문화의전당).

조금만 눈을 돌리면 광활한 세상 속, 가슴 떨리는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 남들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길을 따라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살 수 있다. '청춘비상' 을 꿈꾸는 길동무 찾아 '1천개의 직업' 프로젝트는 2011년에도 변함없이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한일 사회적 기업의 지적 교류의 장

사회적기업 한 · 일포럼

올해로 3회째 맞는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후원하고 희망제작소가 주관 · 주최하는 사회적 기업 현황이나 트렌드, 발전 방안 등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에 중점을 둔 한 · 일 간 지적 교류의 장이다.

- 학문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업 연구를 심화 발전
- 한 · 일의 사회적 기업 정책 수립의 이론적 토대 제공
- 한 · 일의 건강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
- 한 · 일 사회적 기업 관련 학자 및 사회적 기업가와 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한 · 일포럼은 어떻게 열렸나

제1회 사회적 기업한 · 일포럼은 2009년 3월 한 · 일 간 사회적 기업 현황 공유와 양국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리고 제2회 대회는 2010년 1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3회 사회적 기업 한 · 일포럼은 2010년 11월 한일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교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영 챌린지' , 12월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아시아미래포럼의 '동아시아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 세션, 그리고 2011년 2월 17, 18일 공개심포지엄과 네트워크 파티, 한국 사회적 기업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영챌린지

제3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중 한국과 일본의 청년 사회적 기업가 교류프로그램인 '프로젝트 : 영챌린지'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17~35세의 한국 청년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회적 기업을 시도한 적이 있는 팀, 또는 사회적 기업 관련 이슈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팀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발되었다.

–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있는 곳 '유유자적 살롱'
– 이 땅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주여성을 위한 '에코팜므'
–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예술 'AOA'
– 세상의 모든 지역을 행복하게 '아이엠궁'
– 농촌과 도시소비자를 잇는 착한 브로커 '빛트인'

아시아미래포럼의 '동아시아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

2010년 12월 15, 16일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미래포럼의 '동아시아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 세션이 진행됐다.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희망제작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 세션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타니모토 간지(일본–히토츠바시 대학교), 리판(중국–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박상유(한국–한겨레경제연구소), 이사벨 피트(영국 DTA), 이영환(한국 성공회대학교)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세션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히는 정부와 대기업,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 조직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주제와 내용이 한 · 중 · 일에서 각각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사회적 기업과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파티

2월 17, 18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개 심포지엄(주제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했다. '지역'이라는 주제를 고민의 첫 단추로 삼고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형태와 구조의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와 같은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좌담 타니모토 간지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정태인 새로운세상을여는연구원 원장

발표자 오무로 노부요시(쿄토산업대학교 교수), 김창환(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국장), 타카키 하루미츠(NPO네오스 대표), 소네하라 히사시(에가오 쯔나게테 대표),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무이사), 김성기(성공회대학교 교수)

패널 야마다 유우코(오사카 NPO센터이사 & 킨키 소셜비즈니스네트워크 사무국장), 사이토 노리코(Japan Forum of Business and Society 사무국장), 히로이시 타쿠지(엔퍼블릭 대표 & 일본희망제작소),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배미원(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

정읍시

명품농산물의 또 다른 이름

단풍미인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내장산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오염되지 않은 동진강의 맑고 풍부한 물!

땅을 지키며 근면함으로
우리 농업을 굳건하게 지켜온 정읍 사람들

대한민국 1%를 지향하는 준비된 브랜드
'단풍미인'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빚어낸
정읍의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품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더해져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단풍미인'

쌀과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까지

'단풍미인'은 정읍시가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생산한 최고급 농산물입니다.



쌀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

Cinespace Juan
영화공간 주안

예매_ 홈페이지 또는 맥스무비
운영_ 오후 1시 – 10시(매주 월요일 휴관)

영화공간주안은 문화의 경계를, 영화의 경계를 뛰어 넘는 다양성 영화의 장이며, 365일 다채롭게 펼쳐지는 영화·영상 축제의 장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양성 영화 전문상영관
인천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영화관**

국·내외 우수 예술영화 관람료 5,000원

좋은 영화 무료 관람 – **주민시네마테크!** 매일 오후 3시

해설과 **토론**이 함께하는 예술영화 뒤집어보기 – **11시의 무비톡!**
시니어, 주니어 클래스(매월 정기 진행)

영화공간 주안에서 영화 보고 다양한 이벤트 선물도 받으세요~

설립 인천광역시남구 운영 남구학산문화원
후원 인천광역시 KOFIC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cinespacejuan.com
카페 cafe.naver.com/cinespacejuan
트위터 twitter.com/cinespacejuan
블로그 blog.naver.com/injuan 남구학산문화원 www.haksanculture.or.kr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66-1 메인프라자 7층 영화공간 주안
주안역 8번 출구, 인천사랑병원 옆
T 032-427-6777

사진으로 보는
2010 희망제작소

우리와 당신의 이야기









❶ 북촌 한옥마을 찾은 희망사업견문단 ❷ 수원 시민창안대회 홍보 부스를 찾은 아이들 ❸ 우리 동네의 재발견(중구 동고동락 프로젝트)



❹ 웃는명함 홍보모델 권태준 연구원 ❺ 그 때 그 노래 기억하세요?(2010 후원회원의 밤)







❻ 이게 누구십니까(1천개의 직업) ❼ 퇴근 후 렛츠 1기 처음 만난 날 ❽ 2010 해피 시니어 어워즈 영광의 얼굴들



❾ 지역희망탐사는 계속됩니다 ❿ 365일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희망모울 대중강연) ⓫ 발우공양과 함께한 호프메이커스클럽 ⓬ 백지장도 머리 맞대면 낫다(고양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⓭ 우정의 무대를 방불케 한 소셜이노베이션 캠프 오리엔테이션 ⓮ 온갖 문서에 포위당한 박상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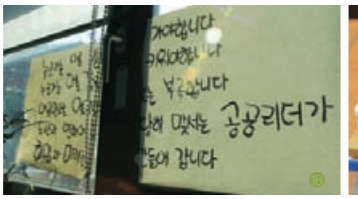




⑮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미트 2010 ⑯ 개인기 뽐내는 김돈회 연구원(연구원 송년의 밤) ⑰ 36시간의 감동! 소셜이노베이션 캠프 ⑱ 교육센터 연구원들이 매일 마주하는 문구 ⑲ 앞으론 천장까지 쌓으렵니다(2010 발간 자료집들) ⑳ 이성은 연구원, 화면이 몇 개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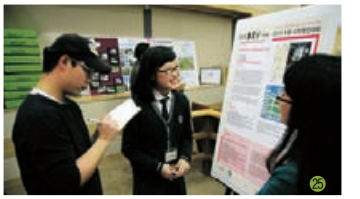








㉑ 프로젝트 타임라인 그리기(소셜디자이너스쿨 8기) ㉒ 반가워요!(6월 김치찌개Day) ㉓ 회원센터 식구들은 오늘도 회의 중 ㉔ 찰나의 행복(연구원 여름 지리산 종주) ㉕ 제 아이디어는 말이죠(수원 시민창안대회 본선) ㉖ 밤을 잊은 대화(연구원 내이랑 마을 워크숍) ㉗ 오랜만에 공부하니 힘드네(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학교) ㉘ 행복설계아카데미 12기 워크숍 현장











내실을 다지며 도약의 발판을 만들다

희망제작소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출판, 세미나 · 포럼,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본다.

희망제작소에는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있다. 교육 사업들을 교육 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1)지역사회에서 공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공무원, 시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리더 교육 과정, 2)비영리 영역의 마인드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는 비영리 전문가 과정, 3)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 2010년 희망제작소 교육사업 |

희망제작소 교육사업 통계		2010		2006~2010 총횟수	2006~2010 총인원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 횟수	수료 인원		
1) 공공리더 교육	공무원학교	5	938	24	2,751
	시장학교	1	28	6	188
	지역리더학교	6	823	14	1,163
	공무원해외연수	1	17	8	155
	자치단체장해외연수	1	27	4	98
2) 비영리 전문교육과정	모금전문가학교	1	38	3	134
	NPO경영학교	1	35	2	81
	지혜를 포스팅하라	2	41	2	41
3) 시민교육 입문과정	행복설계아카데미 (위탁과정 포함)	4	139	15	455
	소셜디자이너스쿨 (SDS)	3	121	8	362
	퇴근 후 Let' s	1	45	1	45
총합계		26	2,252	87	5, 473

올 한해 희망제작소는 총 26번의 교육을 통해 2천여 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공무원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 는 모토로 공공리더들의 성장을 돕는 공공리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리더에 이르기까지 1천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공공리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참여예산, 공공디자인, 시민참여행정이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공무원 해외연수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적 해외연수를 기획·진행하는 '여행사공공'을 하나투어와 함께 설립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공무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전문가학교, NPO경영학교는 지속가능한 비영리단체를 꿈꾸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소셜디자이너스쿨은 1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들은 동문 모임인 SDC를 구성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행복설계아카데미는 위탁 교육 과정을 포함한 총 4번의 교육을 통해 1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비영리영역에서 유급 상근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설아 동문회, 행복설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다. 퇴근 후 Let's는 2010년 새롭게 시작한 30~40대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직장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2기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 2010년 희망제작소 세미나/포럼 |

세미나/포럼 주제	2010		2006~2010
	국내포럼	국제포럼	전체횟수
공공리더			7
공공문화			7
기후환경	1		7
농촌희망			38
도시공간	6		8
사회창안			3
소기업/사회적 기업	1	1	20
소셜디자인	2	1	4
시니어사회공헌	1		13
싱크탱크			1
자치재정			15
자치조례			11
재난관리			30
정책현안			12
주민참여			7
지역리더			10
지역재단	5		11
지역현안			4
커뮤니티비즈니스	4	1	7
희망모울			28
총합계	**20**	**3**	**243**

희망제작소는 국내포럼 20회 국제포럼 3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일 간 지식교류와 네트워크가 꾸준히 이뤄졌다.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형태와 구조의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에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을 집중 조명해보고 경제적인 지원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텔아시아와 공동주최한 제1회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미트는 빠르게 변화

| 2010년 희망제작소 출간물 |

출간물	2006	2007	2008	2009	2010	총합계
교육교재	3	14	30	26	14	87
단행본			15	30	10	55
연구보고서		12		29	4	45
자료집	10	38	43	10	11	112
오디오CD					2	2
총합계	**13**	**64**	**88**	**95**	**41**	**301**

| 수원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 |

구 분	개수	비율
자유과제	78	52%
IT/미디어	2	1%
교육/문화/예술	22	15%
기타	12	8%
복지/봉사/기부	11	7%
시민/지역/자치	16	11%
지역경제활성화	5	3%
환경/생태	10	7%
지정과제	73	48%
문화가 있는 수원 하천 가꾸기 방안	19	13%
화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54	36%
총합계	**151**	**100%**

하는 아시아 사회 속에서 NGO들이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아시아 최초의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번역서와 자료집이 꾸준히 출간되었다. 자료집과 단행본이 전년도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것은 재정적 위기를 맞아 희망제작소 조직과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제는 지역, 사회적 기업에 집중되었고, 내용은 더욱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향후 지역과 농촌에 관련된 주제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해 나갈 것이며, 소셜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콘텐츠 확산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2010년 10월 1일 시작된 수원시민창안대회가 최종 결선발표회를 끝으로 141일간의 여정을 마감했다. 5주간 진행된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151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선발된 5개의 아이디어 제안자들은 83일간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가졌다. 시민이 참여하는 창안, 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 또한 계속될 것이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GEUMCHEON-GU

www.hscity.net

“화성시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어르신 · 어린이 · 장애인 · 다문화가정을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듭니다.



1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 보육시설 시간 연장 · 보육품질 향상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특성화교육벨트 구축

2 노인이 행복한 도시

-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만성질환관리센터 ·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3 구석구석 행복한 도시

-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사업 확대
- 민간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 응급의료체계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원재정센터

시민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다

회원 6천명 돌파

지난 2010년 희망제작소는 한해 동안 2천여 명에 이르는 후원회원이 증가해 명실공히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희망제작소로서 입지를 다지는 한해가 되었다. 이처럼 회원을 확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다양한 주제의 연구활동과 역동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도 희망제작소의 희망별동대가 20대 젊은 대학생, 청년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2010년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져 시니어 그룹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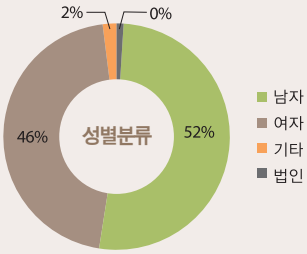
회원의 구성을 보면, 남성 52% 여성 46%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는 각 지역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는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표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희망제작소는 더욱 다양한 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회원 참여프로그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제작소의 연구·사업에 동참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희망사업 견문단을 진행해 약 100여 명이 참가했고, 박원순 상임이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김치찌개데이를 통해 240여 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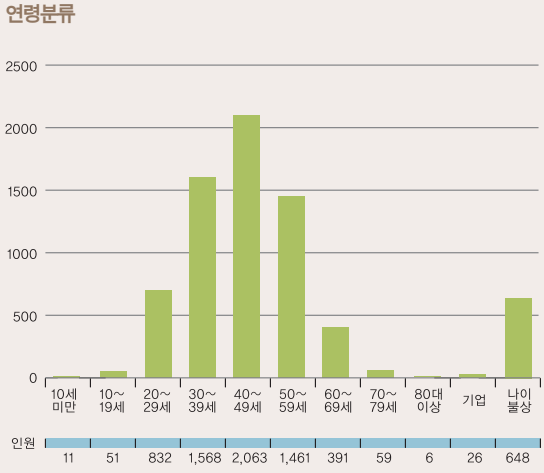
희망제작소의 연구사업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순수한 동호회의 취지로 산행을 함께 하는 강산애 모임을 통해 25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창녕 감따기 행사, 트위터를 이용한 각종 번개모임을 통해 약 50여 명의 새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약 650여 명의 회원들이 희망제작소를 경험하고 참여했다.

2010년 성과를 발판 삼아 2011년에는 더욱 발랄하고 창의적인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움직이는 희망제작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희망제작소에 오면 언제나 밝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성별	인원
남자	3,296
여자	2,898
법인	26
기타	132
총합계	6,352



|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분석 |

회원재정센터

김치찌개데이

김치찌개데이는 신규후원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월례 프로그램으로, 후원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치찌개데이는 본 행사 시작 전에 희망제작소 곳곳을 둘러보며 연구원들의 밝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원순씨(박원순 상임이사)는 3층 주방에서 신입회원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한다. 조금 일찍 도착한 회원들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유기농 재료로 준비한 소박한 밥상은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면 따뜻한 차를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다.

2011년에도 김치찌개데이는 더욱 다채롭고 유익한 주제들을 가지고 회원님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각 행사마다 특색있는 테마가 준비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

기억 속의 베스트 3

지난 한 해에도 김치찌개데이는 다양한 주제로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뜻 깊었던 행사를 소개한다.

첫 번째, 8월에 진행된 죽마고우와 함께한 행사인데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이래 꾸준히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온 후원자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장기 후원자 분들을 취지를 설명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후원자들은 이 날 행사에서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대안과 희망을 만드는 데 보람을 느낀다는 분,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제작소에 재능을 보태고 싶다는 분, 직접 제작소에 방문해서 희망제작소의 사업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다양한 말씀을 나눠주었다.

두 번째, 지난 9월에 있었던 학부모 ·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사이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 종사자 등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교육에 관심 있는 후원자들과 함께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을 못내 아쉬워했다. 교육 문제가 새삼 크고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세 번째, 고재열 기자와 함께했던 6월 행사이다. 고재열 기자는 파워 블로거이자 소셜미디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참석자들은 TGIF(T:트위터, G:구글, I:아이폰(스마트폰), F:페이스북)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깊이 빠져들었다. 트위터가 정보의 습득과 전파에 완전한 평등을 이룸으로써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고 기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소셜미디어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2010년 김치찌개데이 돌아보기 |

일시	행사명	행사 초청
3월	'민들레사업단'과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민들레사업단 기존 활동가 민들레 사업단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4월	파워블로거 '하우매니'님과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2, 3월 신규 정기 후원회원 및 기존 후원회원
5월	파워블로거 '기린나무'님과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1~4월 신규 정기후원회원 및 기존 후원 회원
6월	독설닷컴 고재열 기자와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5~6월 신규 정기후원회원 및 기존 후원 회원
7월	〈88만원세대〉 저자 우석훈과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20~27세, 대학생 후원자 및 기존 후원 회원
8월	죽마고우와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2006년 창립 이래 후원을 해주신 장기 후원 회원
9월	학부모 ·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교육 종사자, 학부모 후원회원 및 기존 후원 회원
11월	1천개의 직업 행사 원순씨와 식사권, 티타임 당첨자와 함께하는 김치찌개데이	1천개의 직업 행사에서 원순씨와 식사권, 티타임 당첨자

회원재정센터

강산애(江山愛)

강산애는 강과 산을 사랑하는 희망제작소 회원들의 모임으로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정기 산행이 있다. 강산애는 정기산행 및 각종 모임을 통해 희망제작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결성하였고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 약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이외에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뜻을 보태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배낭 하나 달랑 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산행 후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기쁨은 비할 데 없이 좋다. 원순씨도 강산애의 열렬한 회원으로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강산애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희망제작소 평창동 사무실 근처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지리산, 화야산, 청계산, 북한산 둘레길, 대



| 2010년 강산애 돌아보기 |

일시	행사명
1월	신년 맞이 지리산행,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산행
2월	설경이 아름다운 북한산행
4월	진달래꽃이 아름다운 북한산행
5월	5월 햇살 가득한 북한산행
6월	가장 청명한 6월의 북한산행
7월	시원한 계곡물을 자랑하는 화야산행
8월	소귀천 계곡이 시원한 북한산행
9월	백운대 아래 굽어보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북한산행
10월	탄성을 자아내는 가을 북한산행
11월	단풍의 아름다움이 절정인 북한산 둘레길
12월	청계산행과 대둔산행



둔산 등을 다녀왔다. 2011년에는 서울 근교 산을 주로 다닐 예정이다.

강산애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이력을 가진 회원들과 든든한 운영진이 있다. 2010년 1월 1일 지리산 새해맞이 산행 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석락희 회장이 중심에 서면서 9월 총회가 열려 강산애 운영진이 면모를 갖추었다. '전 회원의 운영진화!'라는 모토 하에 모두 10분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회장 석락희님, 부회장 유영아님, 나은중님, 감사 정현철님, 총무 이태환님, 전명국님, 박재현님, 산행대장 권오성님, 자문위원 이영구님, 이창식님 운영진이다.

기억 속의 베스트 3

지난 한해에도 강산애 모임은 다양한 주제로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뜻 깊었던 모임을 소개한다.

첫 번째 모임은 청명한 날, 북한산행이 있던 6월의 강산애이다. 산행 코스는 정릉에서 출발해 북한산성을 지나 평창동으로 내려오는 약 4시간 코스였다. 보국문과 대성문 등 사적지에서의 시간은 산행의 의미를 더해주었고, 산행지와 뒷풀이 장소에서의 멋들어진 노래는 모임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워 주었다.

두 번째 모임은 서울 밖 가평 화야산으로 떠난 7월의 강산애이다. 화야산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인지 다채로운 야생화와 울창한 숲 속에 형성된 나비 군락지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었다. 강산애 회원들은 시원한 숲 속에서 7시간 동안 천천히 산행을 하며 숲과 교감했다. 산행을 마치고 빠가사리 매운탕과 푸짐한 반찬, 비빔밥은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다.

세 번째 모임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던 11월의 강산애이다. 북한산 둘레길은 인수봉, 만경대 정상을 둘러싸고 산자락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상의 아름다움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편안하게 주위 풍광을 살피며 걷기 좋은 산행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산행에 동참해 주었다.

회원재정센터

희망사업견문단

희망사업견문단은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연구원들이 길라잡이가 되어 희망제작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미니 워크숍, 사례 발표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후원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김치찌개 데이와 함께 회원 필수 참여 코스 중 하나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만큼 앞으로는 희망제작소 주요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후원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2010년 돌아보기

5월에 진행되었던 희망사업견문단은 교육센터에서 회원들과 함께 서울 북촌을 돌아보며 옛것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는데, 희망제작소 HMC 회원인 북촌 동양문화박물관의 권영두 관장이 역사적, 문화적 자료에 근거해 북촌의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탐방을 마친 후에는 북촌 동양문화박물관의 시원한 사랑방에 모여 보존과 개발, 북촌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6월에 진행되었던 희망사업견문단은 사회혁신센터와 함께 소셜디자이너에 대한 강연과 스토리게임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소셜디자이너에 대한 강연 시간에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 지역, 인종, 연령 등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사회 혁신이라는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있었다.

| 2010년 희망사업견문단 주요행사 |

일시	행사명
5월	희망사업견문단 제1탄, 북촌에서 희망을 노닐다
6월	희망사업견문단 제2탄, 당신도 소셜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7월	희망사업견문단 제3탄, 재능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9월	희망사업견문단 제4탄, 세계문화유산 화성에서 마을 만들기의 희망을 찾아보세요





스토리게임 순서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이 소셜디자이너를 직접 체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5명이 한 조가 되고, 각 조에 한 가지씩 주제를 주면 조원들이 합심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몄다. 오직 종이와, 펜, 각양각생의 사진으로 주제를 표현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주제를 받고도 조원들끼리 합심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줄거리를 구성해 나갔다.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셜디자이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7월에 진행된 희망사업견문단은 시니어사회공헌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다. 재능봉사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회원들과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엄마와 동행한 중학생부터 퇴직을 앞둔 장년층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행설아를 수료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재능을 개발해가는 방법에서부터 영리단체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효율성과 능률을 비영리단체 활동에 접목하는 방법, 자원봉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등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값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9월에는 '지역에 맞는 마을만들기' 라는 주제로 뿌리센터와 함께 수원화성을 탐방하고 함께 얘기했다. 수원화성 탐방은 14대째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토박이이자 전 화성연구회 사무처장인 염상균님이 도움을 주었다. 역사적 사료와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며 전달한 화성의 숨은 이야기들은 무척 흥미진진했다.

수원 화성을 둘러보고 나서 참가자들은 화성 박물관으로 이동해 화성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화성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소통해 화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진지한 의견들이 오갔다.

회원재정센터

민들레사업단



민들레사업단은 시민주체 연구소라는 희망제작소의 취지에 걸맞게 희망제작소 회원들이 후원 회원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도 희망제작소의 사업과 관련해서 특화된 분야에 능력과 재능을 가진 자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도 들어서 민들레사업단은 정기적으로 희망제작소를 방문해 활동하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총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회원 감사전화, 우편물 발송, 회원행사 지원, 취재, 번역, 블로그 관리, 희망제작소 투어 공간 정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형태로 활동했다. 올 한 해는 민들레사업단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화된 분야에서 민들레사업단 구성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아래에 민들레사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10여 분 중 김명희님의 활동체험기를 소개한다. 김명희님은 소비자 상담 분야의 직장 경험을 살려 회원 감사전화 활동을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취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재훈님, 다양한 행사 지원을 해주고 계신 강민숙님, 1004클럽 회원 응대에 도움을 주고 계신 정미영님, 회원데이터와 행사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다은님, 김민지님, 황원관님, 자료 조사 및 번역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진아님, 조비아님 , 네이버 해피빈 블로그 관리 지원을 해주신 김은영님, 희망제작소 공간디자인을 지원해주신 그린씨님, 이경래님을 비롯 한해 동안 민들레사업단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몸살 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늘 희망을 이야기 하는 곳. 끊임없이 발칙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곳. 제가 아는 희망제작소입니다. 그 곳에서 작은 희망씨앗이 되어보려고 작년 여름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후원회원 분들께 감사전화와 행사초청 전화를 드리는 일이었으며, 이 일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많은 후원회원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분 들로 인해 살맛나는 세상을 느끼며 저 또한 기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어른 아이 모두 멋진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들레사업단 김명희님

회원재정센터

1004클럽

"전주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박린입니다. 아빠를 따라 희망제작소 행사에 갔다가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희망제작소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일회용 생리대보다는 천 생리대가 몸에도 좋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올랐어요. 매달 일회용 생리대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희망제작소에 기부할 거예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기부천사 이야기

33만5천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기특한데, 어른들도 귀찮게 생각하는 생리대를 직접 빨아 사용한다니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소녀의 무엇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제작소를 위해 소중한 돈을 기부하도록 했을까. 그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을 텐데 말이다. 기부 문화가 바뀌고 있다.

2020 미래사회 10대 트렌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고령화(Aging), 융합(Blending), 기후변화(Climate Change), 디지털화(Digitalization), 에너지와 환경(Energy/Environment), 여성성 강화(Female)에 이어 기부문화(Philanthropy)까지 포함됐다.

예전에는 익명이나 김밥할머니들의 미담이 신문 지상을 장식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환경적, 교육적 측면에서 기부자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을 중심으로 한 빌리언에어 클럽인 기부서약(Giving Pledge)은 최근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에 이르기까지 기부에 대한 연령층까지 파괴해 버렸다.

이 '기부서약'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최소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이들의 기부 의사를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부서약'에 기부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공개해 후손에게도 약속을 지킬 도덕적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물결이 2년 전부터 희망제작소에서 일고 있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1004클럽은 희망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1004명이 참여하는 희망제작소의 1천만 원 기부자 커뮤니티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금방법을 개발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스스로 모금해 1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현재 130여 명이 자신의


유토피아주오관
JSB
Hewitt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모에게 받은 용돈과 명절날 세뱃돈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유치원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 그 비용을 보내오는가 하면, 매일 첫 번째 구둣방에 오는 손님의 구두수선비를 모으고, 첫 번째 환자들의 의료비를 기부하기도 한다. 사회를 바꾸는 소셜디자이너로서 재능기부를 하는 만화가와 요리연구가들도 있고,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나 강연료 전액을 아예 희망제작소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는 강사들도 있다.

매일 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100원씩 108배를 해서 매달 32만4천 원을 모으고, 만기 보험금을 흔쾌히 기부하기도 하는가 하면, 35명의 전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씩 모아 입금하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20여 명의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천사기금을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 그 누구의 사연 하나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없고, 이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천사의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멀리 외국에서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수익금을 보내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았다는 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고국에 왔다면서 빈손으로 오기 부끄러워 거금의 봉투를 살며시 내밀기도 했고, 고국에 초대한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외화를 주기도 했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유류비가 절감된다면서 그 비용까지 보내오는 소중한 후원자, 출판사에서 책 한권이 출간될 때마다 10만 원씩 기부하는 등 이들은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그야말로 지지대요, 솟대로 우리 가슴을 울린다.

이제 1004클럽도 1004명의 기부자들이 함께 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날이 오면 희망제작소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회원재정센터

호프메이커스클럽
(HMC, Hope Makers' Club)

실크로드 사막에서 홍수를 만나다

연 강수량이 250~400mm로 건조한 지역(연 증발량은 2,000mm이상)에서 사흘 연속 5mm정도로 흩뿌린 비 때문에 사막에서 홍수를 만났다. 2010년 8월 29일 중앙아시아 신장위구르자치구 쿠차에서 악수로 이동하는 순간이었다.

키질다리에서는 차 1대가 빠지고 둑이 무너졌다. 사망자도 나왔다 한다. 위구르인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모두 다리로 나와 긴급사태가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행들은 고작 이런 가랑비에 난리법석을 떠는 위구르인들이 너무 신기해 이색적인 전경 앞에 사진을 찍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했다. 1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차들은 진출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일행은 그곳의 촌장께 목숨을 담보로 도강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위구르인들의 차량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버스 2대만 그 사선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1~2명이 아닌 70명의 목숨이 모두 걸렸으니 말이다.

중국 가이드들의 통화에 의하면 우리가 출발한 후 키질다리가 아예 무너졌다는 것이다. 모두 손뼉을 치며 살아있음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우리들에겐 행운의 연속인 날들이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침마다 "시련을 즐기자"를 구호로 내걸며 그 고단한 실크로드를 달려갈 수 있었다. 혜초와 같은 구법승과 일행들이 닦아둔 실크로드는 100명이 출발해 돌아온 사람은 겨우 한두 명에 불과 했단다.

이 지역을 30년 동안이나 연구해 온 국립중앙 박물관 민병훈 박사도 이렇게 사흘 연속 비가 내린 날도 없었지만,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지고 이 소식이 한국 TV 외신에까지 보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란다. 이렇게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가 나고 다리가 유실되는 것은 바로 비를 흡수할 나무들이 없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호프메이커스클럽(Hope Makers' Club, 아래 HMC)에서

| 2011년 행사 일정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내용
1월21일(금)	탐방	용인에서 감성의 아날로그를 깨우다	장욱진 고택, 백남준 아트센터, 느티나무도서관
2월18일(금)	강연	[조찬] 부처님의 자비심에 슬로푸드를 담다	봉은사 진화 주지스님, 아침 공양
3월18일(금)	강연, 탐방	안양에서 문화예술이 꽃피다	최대호 시장,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중초사지당간지주 서울대 관악수목림
4월15일(금) ~4월25일(월)	해외 투어 (9박11일)	해외 문화 탐방(터키, 그리스) - 한국외대 유재원 교수 동행	이스탄불, 앙카라, 하투샤, 카파토키아, 파묵칼레, 페르가몬, 챠나칼레, 아테네, 고린도, 수니온곶
5월20일(금) ~21(토)	지역투어 (1박 2일)	경주에서 실크로드 문화와 만나다 - 국립중앙박물관 민병훈 박사 동행	경주박물관, 오토 김선현 대표 경주 공장 방문
6월17일(금)	문화예술	70년 전통 한국 곡예의 자존심 - 동춘 서커스를 찾아서	
7월22일(금)	회원기획	희망의 집짓기 현장을 가다 - 노동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한국해비타트 이창식 회장
8월19일(금)	강연, 탐방	서울 성북구의 보물창고를 찾아라 - 최순우 집, 간송미술관, 길상사, 이효재(효재처럼), 가구박물관	내셔널 트러스트 김홍남 대표
9월23일(금)	강연	[조찬] 아주 특별한 곳으로의 초대	
10월21일(금)	탐방	북한산 둘레길 걷기, 도봉숲속마을 - 김훈과 걷기	도봉숲속마을 박민정 상임이사
11월18일(금) ~19일(토)	체험 (1박 2일)	고향의 맛과 멋을 찾아서 - 경남 창녕	감따기, 우포늪 둘러보기
12월16일(금)	문화예술	체험과 나눔 행사 - 떡, 빵 요리로 불우이웃 방문	

중국 실크로드 역사탐방으로 우루무치, 투르판, 코를라, 쿠차, 악수, 카스를 둘러볼 때의 일이다.



HMC는 지난 2009년 4월 우리 사회 계층간 갈등을 소통으로 허물고 화해하면서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매월 회원들의 사업장이나 희망제작소의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태체험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해외로 그 범위를 확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회원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의 인문학 탐방에 나선 것이다.

일반인들이 용기 내어 가기 힘든 오지나 자주 찾아가는 지역도 '아는 만큼 보인다' 는 생각으로 떠나기 전에 사전 학습회를 통해 충분히 그 지역들을 배우고 익혀 실제 현장에서는 '보인 만큼 느끼는' 감동을 더해 줬다. 중국 실크로드도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고, 역경 속에서도 회원들은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직 설법을 위해 구도를 위해 사막에서의 생존을 위해 그 옛날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다는 죽음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걸어 중앙아시아를 지나, 인도를 넘어, 터키 이스탄불로, 이태리 로마까지 나아갔다. 그 길을 회원들도 따라가 보고자 했다. 사막에서의 생사를 넘나드는 45℃의 무더위와 배고픔에도 무사귀환을 위해 석굴을 파고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행의 길에 우리도 함께 하고 싶었다. 바로 그 길에서 희망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지난해 HMC는 매월 1회, 12번의 행사를 치렀다.

1월 '태백, 정선 탄광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2월 '대한민국 최고의 신응수 대목장과 조선왕조 5백년 경복궁을 가다' , 3월 '서울 도시 재생 현주소를 찾아서- 월드컵공원, 성미산 공동체, 선유도공원' , 4월 '파주 출판단지에 서린 꿈- 북21, 김영사, 인터파크 물류센터' , 5월 '지리산의 만춘을 즐기다 - 청매실농원, 인산가, 하얀햇살, 실상사 도법스님 법문' , 6월 '북촌을 거닐다 - 북촌한옥마을, 북촌동양문화박물관' , 7월 '중국 실크로드 역사탐방' , 8월 '세계 문화유산 조선 선릉, 정릉에서 역사의 비밀을 캔다' , 9월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서' , 10월 '전북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찾아서' , 11월 '창조의 섬 남이섬의 상상이야기' , 12월 '구공탄으로 전하는 따뜻한 희망이야기' 로 진행됐다.

이제 2011년이 또 시작됐다. HMC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자신을 오뚝이처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것이다.

참여로 특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문화가 넘실대고
초록으로 꿈꾸다

초록빛 물결에 눈을 씻고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곳~
도봉구에서 삶의 여유와 자연의 감동을 담아가세요.



도봉구

feel GyeongNam

45일간 열리는 고려인의 천 년 지혜의 장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2011.9.23 ~ 11.6(45일간)

해인사,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
창원 CECO



경상남도



희망의 별

함께 있어 좋은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7,291명

가섭스님 가정례 가평수 가후현 갈상돈 감고운 감미경 감정규 강경근 강경석 강경석 강경식 강기석 강기정 강기혁 강길수(서혜진) 강난희 강다현 강단비 강대성 강동석 강동욱 강동진 강동하 강동효 강마야 강명득 강명석 강무석 강무종 강문정 강문종 강미미 강미순 강미애 강미양 강미영 강미옥 강미옥 강미옥 강미자 강미정 강미현 강미혜 강민경 강민규 강민수 강민수 강민숙 강민아 강민아 강민예 강민정 강민철 강민혜 강병권 강병규 강병수 강병현 강병훈 강병훈 강봉기 강부덕 강부연 강부연 강부임 강사원 강상균 강석호 강선미 강선영 강선임 강선자 강성고 강성곤 강성모 강성옥 강성용 강성용(강서영) 강성준 강성창 강성칠 강세진 강소희 강수련 강수윤 강수현 강숙영 강숙희 강순홍 강승구 강승균 강승열 강승희 강신구 강연 강영수 강영숙 강영점 강영혜 강영호 강영훈 강영희 강예린 강용건 강용근 강용철 강우식 강운현 강원일 강원택 강유정 강윤기 강윤자 강윤정 강윤화 강은미 강은미 강은숙 강은엽 강은영 강은영 강은영 강은옥 강은주 강은주 강은하 강은향 강을규 강의모 강의숙 강인숙 강인철 강인화 강전희 강정근 강정삼 강정아 강정아 강정인 강정혁 강정현 강정훈 강종숙 강주형 강주혜 강지선 강지현 강진영 강진주 강창국 강창수 강철성 강춘근 강치원 강태진 강평석 강한종 강헌 강현구 강현석 강현숙 강현숙 강현숙 강현숙 강현순 강현아 강현오 강현자 강현주 강혜란 강호선 강홍구 강홍수 강홍준 강효정 강효주 강훈 강훈근 강희경 강희경 강희석 강희석 강희영 강희웅 경보슬 경정은 경천스님 계초 고경희 고경희 고관석 고관철 고광민 고광윤 고광헌 고광희 고국종 고군순 고기호 고도재 고도현 고명석 고명섭 고명옥 고명희 고문희 고민재 고민정 고민호 고범석 고상배 고석환 고선강 고선강 고선희 고성남 고성민 고성호 고세현 고소영 고소임 고수용 고수인 고순희 고승의 고승환 고여주 고연순 고영 고영문 고영신 고영하 고영환 고영희 고원석 고유범 고유빈 고유순 고윤경 고은강 고은경 고은경 고은경 고은수 고은호 고재경 고재관 고재덕 고재원 고재은 고재준 고점성 고정림 고정숙 고정용 고정혜 고정희 고제석 고종훈 고창규 고태관 고현석 고현선 고현수 고현진 고혜경 고혜선 고혜정 고혜진 고호석 고홍철 고희권 고희범 고희준 고희철 공석범 공은영 공인영 공일호 공재호 공정순 공진성 공진형 공호영 공홍석 곽경재 곽금자 곽기정 곽만주 곽보매 곽상협 곽성욱 곽성현 곽연하 곽연화 곽은경 곽은선 곽은주 곽자현 곽정숙 곽준혁 곽형규 곽혜영 곽호준 곽효승 곽효정 곽희수 교촌치킨 금앙점 구경완 구경혜 구남숙 구도완 구민오 구법모 구본일 구분임 구선영 구선희 구영소 구완회 구외옥 구윤서 구자덕 구자영 구자예 구자원 구자현 구자호 구재용 구준회 구준회 구지선 구창규 구현지 구희숙 국민수 국승용 국영석 국재민 국제기계(박창구) 국주영은 국지혜 권강주 권건주 권경률 권경옥 권경원 권광중 권광호 권구홍 권기식 권기풍 권남진 권대현 권대호 권명숙 권명숙 권명숙 권무정 권문상 권문숙 권미혜 권미화 권민석 권민정 권민정 권민정 (헤라) 권민지 권민희 권병민 권상동 권상수 권상혁 권상훈 권선영 권선주 권선준 권성률 권성미 권성실 권소영 권소영 권수정 권수현 권숙인(하나-둘-셋!) 권순규 권순길 권순선 권순일 권순정 권시숙 권신우 권신우(권순희) 권영규 권영길 권영두 권영랑 권영민 권영석 권영준 권영진 권영찬 권영태 권예경

권오구 권오상 권오성 권오영 권오용 권오재 권오정 권오중 권오황 권용진 권원 권윤정 권인영 권장희 권재옥 권정아 권정은 권정혜 권정호
권정희 권정희 권정희 권정희 권제세 권중환 권중환 권지영 권지희 권태선 권태승 권태환 권해연 권향연 권혁도 권혁순 권혁중 권혁천 권현아
권현진 권형택 권혜경 권혜경 권혜영 권호현 권희석 권희석 권희영 금방울 금종환 금철영 금혜경 기경남 기길숙 기동환 기민정 기여정 기은환
길기관 길영란 길주연 길채선 김가연 김가영 김강건 김강수 김강수 김강진 김강표 김강학(희망한국) 김건엽 김건효 김경남 김경덕 김경란
김경란 김경림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순 김경식 김경아 김경애 김경애 김경양 김경열 김경일 김경자
김경자 김경주 김경철 김경태 김경태 김경태2(3,6,9,12) 김경혜 김경호 김경호 김경화 김경환 김경환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숙 김고종호 김관식 김관용 김관희 김광득 김광민 김광식 김광열 김광욱 김광유 김광일 김광재 김광태[백두엔지니어링] 김광현
김광희 김구영 김구태 김국희 김귀경 김귀순 김귀연 김귀정 김규범 김규완 김규철 김규태 김규학 김규현 김균희 김근모 김근상 김근영 김근한
김근형 김근호 김근호 김근화 김금옥 김기나 김기민 김기신 김기윤 김기재 김기정 김기정 김기준 김기중 김기찬 김기철 김기철 김기현 김기현
김기협 김기홍 김기환 김길선 김길애 김나경 김나경 김나은 김낙빈 김난영 김남경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식 김남식 김남연 김남우 김남희
김남희 김능인 스님 김다슬 김다영 김다은 김다은 김다정 김다혜 김다혜 김달수 김달진 김대성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용 김대원 김대준
김대중 김대현 김대현 김대호 김대호 김대홍 김대홍 김대홍 김대환 김대환 김덕 김덕창 김덕희 김도균 김도균 김도근 김도성 김도연 김도형
김도형 김도희 김동곤 김동관 김동균 김동기 김동립 김동석 김동석 김동성 김동수 김동식 김동식 김동애 김동언 김동언 김동연 김동연 김동연
김동완 김동우 김동율 김동은 김동주 김동진 김동창 김동철 김동한 김동헌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호 김동환 김동환 김동훈 김동훈 김두관
김두하 김두환 김룡 김만일 김만준 김만천 김말숙 김말순 김말희 김맑음 김명기 김명선 김명성 김명수 김명수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식 김명신 김명신 김명옥 김명옥 김명자 김명주 김명주 김명준 김명중 김명진 김명학 김명환 김명환(서울대천사 21)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무정 김무한 김문 김문근 김문숙 김문식 김문주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낭 김미라
김미라 김미란 김미래 김미련 김미리 김미림 김미선 김미수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아 김미악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해 김미행 김미현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석 김민석 김민섭 김민성 김민성 김민솔, 김윤솔 김민아 김민언 김민영 김민우 김민우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찬 김민철 김민향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백곤
김범용 김병곤 김병규 김병기 김병선 김병수 김병수 김병욱 김병윤 김병찬 김병필 김병학 김병현 김병화 김병희 김보경 김보경 김보길 김보나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람 김보람 김보리 김보만 김보미 김보슬 김보연 김보영 김보영 김보영 김보혜 김복기 김복남 김복래 김복석 김봉규
김봉남 김봉선 김봉선 김봉훈 김부성 김부정 김삼용 김상갑 김상규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상길 김상남 김상만 김상병 김상수 김상수
김상신 김상연 김상연 김상영 김상욱 김상운 김상원 김상윤 김상익 김상조 김상주 김상준 김상진 김상진 김상철 김상현 김상현 김상현 김상호
김상효 김상희 김서경 김서령 김서형 김석곤 김석기 김석란 김석란 김석수 김석수 김석용 김석원 김석정 김석한 김석호 김석환 김선 김선경
김선경 김선근 김선근 김선기 김선기 김선미 김선미 김선배 김선봉 김선숙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옥 김선우 김선우 김선우
김선웅 김선정 김선주 김선창 김선현 김선호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아 김성곤 김성규 김성렬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 김성식 김성실 김성실 김성심 김성애 김성엽 김성용 김성우 김성욱 김성은
김성자 김성준 김성진 김성철 김성태 김성택 김성한 김성혁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화 김성환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성희 김세남
김세안 김세영 김세용 김세우 김세원 김세은 김세준 김세중 김세천 김세홍 김세희 김소미 김소양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윤
김소은 김소정 김솔빈 김송규 김송희 김수경 김수근(3.6.9.12) 김수길 김수만 김수민 김수민 김수봉(서울대천사 21)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은 김수이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철 김수철 김수현 김수형 김수혜 김수환 김수희 김숙 김숙자 김숙희 김순남 김순애 김순옥 김순옥 김순옥 김순자 김순진 김순호 김솔기
김솔지 김승빈,김승지 김승연 김승원 김승은 김승주 김승취 김승태 김승표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호 김승환 김시은 김시하 김신 김신
김신숙 김신영 김신옥 김신옥 김신완 김신우 김신휘 김씨디 김아람 김아람 김애경 김애란 김애록 김애리 김애숙 김애영 김애화 김양근 김양미
김양수 김양수 김양숙 김양은 김양임 김양자 김양준 김양천 김양호 김여진 김연 김연규 김연수 김연수 김연숙 김연신 김연우 김연재 김연정
김연정 김연정 김연주 김연주 김연주 김연주 김연주 김연지 김연지 김연진 김연철 김연태 김연화 김영 김영각 김영각 김영걸 김영경
김영곤 김영국 김영규 김영규 김영기 김영기 김영길 김영남 김영단 김영단 김영대 김영돈 김영동 김영록 김영만 김영목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배 김영배 김영삼 김영생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섭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시 김영식 김영식 김영식 김영신 김영신 김영실 김영실 김영옥 김영우 김영욱 김영익 김영일
김영임 김영자 김영재 김영종 김영종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천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 김영춘 김영춘 김영태

김영태 김영태 김영태 김영헌 김영호 김영효 김영훈(서울대천사 21) 김영희 김예빈 김예원 김예은 김옙선 김오동 김옥순 김옥이 김옥자 김옥자 김옥준 김옥희 김온 김완복 김완수 김왕경 김왕배 김왕태 김요안 김용관 김용구 김용구 김용구 김용규 김용길 김용대 김용덕 김용란 김용렬 김용민 김용복 김용삼 김용석 김용선 김용수 김용수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김용언 김용우 김용운 김용의 김용인 김용자 김용재 김용준 김용진 김용진 김용진 김용찬 김용태 김용하 김용혁 김용현 김용호 김용환 김용훈 김용휘 김용희 김용희 김우경 김우경 김우식 김우영 김우영2 김우용 김우진 김우진 김우현 김운진 김웅 김원 김원경 김원기 김원기 김원수 김원식 김원용 김원재 김원호 김유경 김유경 김유나 김유선 김유성 김유성 김유이 김유정 김유정 김유정 김유정3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꿈이든미술학원) 김윤경 김윤석 김윤세 김윤숙 김윤정 김윤정 김윤정 김윤종 김윤주 김윤지 김윤태(yt47kim) 김윤환 김윤희 김율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국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선 김은성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애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기회원, 감사전화x]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지 김은진 김은철 김은하 김은하 김은하 김은향 김은회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여르미) 김응기 김의석 김의인 김이원 김이종 김이현 김이호 김익록 김익수 김익환 김인경 김인권 김인도 김인래 김인선 김인선 김인수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웅 김인자 김인택 김인호 김인호 김일권 김일송 김일종 김일태 김임숙 김자영 김자영 김자영 김자영 김장열 김장우 김장호 김장훈 김장훈 김재갑 김재경 김재경 김재곤 김재광 김재길 김재남 김재범(서울대천사 21) 김재봉 김재수 김재수 김재식 김재식 김재업 김재연 김재영 김재용 김재운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은 김재은 김재춘 김재춘 김재춘 김재필 김재헌 김재현 김재현 김재형 김재홍 김재화 김재환 김재훈 김재희 김재희 김전승 김점순(3.6.9.12) 김점희 김정관 김정국 김정근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복 김정분 김정선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식 김정식 김정아 김정안 김정애 김정언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원 김정원 김정윤 김정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김정자 김정주 김정직 김정진 김정태 김정태 김정표 김정학 김정헌 김정헌 김정현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제동 김종관 김종관 김종국 김종규 김종달 김종덕 김종배 김종범 김종봉 김종빈(JBs) 김종석 김종석 김종선 김종성 김종수 김종수 김종순 김종순 김종순 김종식 김종신 김종안 김종열 김종영 김종오 김종우 김종욱 김종욱 김종운 김종율 김종일 김종일 김종임 김종철 김종철 김종필 김종하[백두엔지니어링] 김종항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종환 김종훈 김종훈 김주경 김주남 김주섭 김주연 김주연 김주열 김주영 김주영 김주완 김주인 김주정 김주현 김주현 김주현 김주형 김주호 김주환 김주환 김준규 김준기 김준래 김준묵 김준석 김준수 김준열 김준영 김준태 김준형 김중례 김중헌 김중현 김지 김지나 김지동 김지명 김지민 김지민 김지성 김지양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운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철 김지한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홍 김지훈 김지희 김진 김진 김진경 김진경 김진관 김진교 김진덕 김진묵 김진묵 김진미 김진석 김진성 김진성 김진수 김진수 김진수 김진수 김진수(서울대천사 21)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용 김진우 김진우 김진이 김진형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홍 김진황 김진희 김진희 김찬우 김창 김창규 김창범 김창범 김창선 김창수 김창연 김창우 김창운 김창원 김창주 김창준 김창집 김창현 김창환 김창희 김채석 김철 김철규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한 김철호 김철호 김철홍 김철희 김청용 김청하 김청호 김추령 김춘우 김춘진 김충수 김충식 김충효 김칠성 김칠준 김타균 김타열 김태경 김태곤 김태동 김태룡 김태산 김태선 김태선 김태성 김태순 김태양 김태엽 김태영 김태완 김태용 김태우 김태우 김태원 김태일 김태임 김태종 김태준 김태한 김태현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형 김태호 김태환 김태환 김태효 김태훈 김태훈 김택보 김택중 김택진 김택환 김평만 김평우 김평주 김평화 김하연 김하연 김하영 김하진 김학송 김학실 김학원 김학청 김학태 김한규 김한나 김한도 김한민 김한민 김한선(지오스님) 김한수 김한순 김한욱 김한이 김한일 김한주 김한준 김한진 김한칠 김해랑 김해련 김해룡 김해심 김행옥 김향선 김향숙 김향호 김향희 김헌영 김혁 김혁종 김현경 김현경 김현곤 김현규 김현기 김현모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민 김현빈 김현서 김현서 김현석 김현석 김현석 김현성 김현성 김현성 김현송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식 김현애 김현옥 김현우 김현이 김현이 김현익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준 김현중 김현중 김현지 김현진 김현진 김현태 김현학 김현호 김현희 김형국 김형권 김형균 김형길 김형남 김형석 김형선 김형섭 김형성 김형신 김형심 김형열 김형완 김형욱 김형준 김형중 김형진 김형철 김형태 김혜경 김혜경 김혜나 김혜란 김혜란 김혜란 김혜련 김혜린 김혜림 김혜림 김혜림 김혜민 김혜성 김혜성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영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장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준 김혜진 김혜진 김호근 김호상 김호상 김호석 김호연 김호영 김호일 김호일 김호진 김홍구 김홍석 김홍선 김홍성 김홍성 김홍영 김홍욱 김홍조 김홍주 김홍중 김홍태 김화자 김효곤 김효근 김효미 김효석 김효선 김효숙 김효숙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효철 김효춘 김후각 김훈 김흥수 김흥수 김희경 김희경 김희근 김희상 김희석 김희선 김희선 김희수 김희수 김희승 김희우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주 김희태 꿈을 꾸자 나기선 나기성 나기철 나도선 나범준 나병진 나봉임 나성곤 나성룡[한국농촌관광대학] 나승혜 나언성 나영수 나영신 나윤경 나윤경 나윤주 나윤희 나은경 나은중 나인경 나인범 나인호 나종문 나종민 나종민 나준순 나중한 나태영 나한영 나해선 나현 나혜란 나혜령 나화자 남경아 남경완 남경우 남경탁 남경희 남궁경

남궁신 남궁유리 남궁준 남궁테레사 남궁화 남규선 남규홍 남기선 남기웅 남기은 남기정 남기훈 남다인 남다정 남동환 남미란 남미자 남미현 남병영 남상균 남상만 남상진 남수연 남수정 남수정 남수환 남순연 남순주 남승우 남안진 남영민 남영민 남영희 남웅찬 남원숙 남유숙 남윤우 남인순 남정수 남정임 남주성 남진희 남채희 남춘옥 남춘우 남태웅 남학현 남한결 남현우 남현주 남혜정 남호일 남홍근 노경래 노경문 노경배 노관규 노귀연 노금선 노남규 노단비 노동섭 노동환 노무법인 의연 노미애 노민주 노범용 노병석 노복연 노석양 노성수 노세이 노세호 노수안 노수정 노숙영 노시군 노양섭 노영선 노영신 노예림 노원호 노유진 노은별 노은순 노인선 노재권 노정기 노정숙 노정은 노정혜(서울대천사 21) 노정환 노주혁 노준식 노준형 노지희 노진오 노진철 노태간 노태균 노태영 노현주 노훈영 노희숙 노희승 노희옥 노희정 농촌희망지기 달개비_함재연 대오순 도경이 도경진 도기현 도면회 도미화 도산안창호 도의연 도일환 도재규 도진권 라성윤 라수환 류경숙 류경주 류경희 류근영 류나은 류대열 류동훈 류동희 류미란 류방란 류삼옥 류상일 류상효 류석원 류석진 류성호 류수근 류수용 류수진 류시정 류시호 류은경 류은화 류일형 류재란 류정미 류제경 류지석 류지선 류지연 류지인 류철희 류현주 류현주 류형모 류혜숙 류혜정 류흥섭 리기태 리인수 리화수 마린랜드(주) 마민지 마신혁 마영진 마인수 마장석 마정희 마현철 맹기선 맹길재(경륜스님) 맹봉학 맹정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원명수) 명선목 명승은 명은선 명재석 명종환 모남순 모삼숙 모희정 목영봉 목정하 목지원 목혜원 무주맘 묵은영 문경 문경란 문경호 문국현 문기섭 문기수 문나래 문남숙 문덕순 문라경 문미숙 문병열 문병철 문병현 문보국 문상미 문상영 문상호 문상효 문선미 문성미 문성실 문성실 문성환 문세영 문소연 문수 문순현 문승국 문승기 문승보 문승영 문승희 문애실 문연호 문영주 문예진 문유선 문은숙 문은영 문은진 문응상 문익수 문인근 문인아 문일순 문정기 문정두 문정림 문정수 문정현 문정환[백두엔지니어링] 문정훈 문종열 문지연 문지원 문진경 문진수 문진수 문진숙 문창재 문충선 문하성 문한원 문한주 문현성 문현숙 문현진 문형관 문형우 문혜경 문호준 문희숙 문희숙 문희주 문희현 미셸현패리스 민경관 민기원 민남규 민병규 민병운 민병인 민병훈 민복기 민복기 민성원 민세영 민숙희 민순기 민순식 민영미 민영민 민영진 민영창 민용기 민용희 민윤경 민은기(서울대천사 21) 민재선 민재일 민정희 민지원 민지은 민진혜 민태호 민형배 민혜경 민혜빈 민화규 민희도 박가나 박가현 박가현 박강수 박강훈 박건태 박건희 박경국 박경난 박경덕 박경석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숙 박경아 박경언 박경옥 박경원 박경은 박경자 박경자 박경추 박경춘 박경태 박경태 박경현[백두엔지니어링] 박경호 박경화 박경화 박계순 박고운 박광엽 박광회 박국헌 박국희 박귀숙 박귀애 박규남 박규민(3,6,9,12) 박규병 박규삼 박금연 박금황 박기순 박기원 박기준[백두엔지니어링] 박기찬 박기홍 박기훈 박길환 박나경 박나래 박나리 박난주 박난주 박남수 박남식 박남영 박노곤 박다운 박대길 박대성 박대영 박대훈 박데레사 박동균 박동래 박동복 박동식 박동원 박동일 박동주 박동준 박동헌 박동현 박두규 박로사 박리나 박만훈 박말희 박명권 박명기 박명래 박명숙 박명숙 박명숙 박명옥 박명제 박명준 박명진 박명하 박문숙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박미라 박미라(정재권) 박미란 박미란 박미량 박미선 박미숙 박미연 박미자 박미정 박미진 박미출 박미현 박미혜 박미희 박민규 박민수 박민영 박민우 박민욱 박민정[(재)송석문화재단] 박민주 박병건 박병권 박병근 박병덕 박병배 박병수 박병순 박병엽 박병윤 박병윤(딸: 박린) 박병익 박병창 박병탁 박보건 박보영 박복영 박봄빛누리 박부식 박삼철 박삼훈 박상곤 박상국 박상규 박상대 박상무 박상배 박상배 박상복 박상설 박상용 박상우 박상욱 박상원 박상원 박상윤 박상은 박상응 박상일 박상진 박상진 박상철 박상태 박상현 박상현 박상훈 박상훈 박상훈 박샘 박서영 박서현 박서희 박석근 박석준 박석태 박선게 박선교 박선배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후 박선희 박선희 박선희 박성미 박성민 박성배 박성범 박성수 박성순 박성식 박성애 박성옥 박성우 박성웅 박성이 박성일 박성주 박성진 박성혜 박성호 박성화 박세범 박세복 박세원 박세환 박세환 박세희 박소연 박소영 박소용 박소운 박소현 박수경 박수경 박수경 박수교 박수기 박수미 박수선 박수아 박수주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수천 박수현 박수홍 박숙윤 박숙희 박순규 박순남 박순명 박순빈 박순성 박순천 박순희 박슬기 박승남 박승인 박승자 박승준 박승진 박승희 박시현 박신애 박아름 박아름 박안수 박양수 박연기 박연미 박연병 박연수 박연자 박연주 박연주 박연주 박연진 박연희 박영 박영관 박영국 박영규 박영균 박영립 박영립 박영미 박영미 박영미 박영민 박영선 박영섭 박영소 박영수 박영수 박영숙 박영아 박영옥 박영조 박영철 박영철 박영춘 박영혜 박영혜 박영혜 박영환 박영환 박영희 박예나 박예진 박옥순 박옥희 박완규 박왕옥 박용기 박용덕 박용석 박용성 박용신 박용욱 박용원 박용준 박용화 박우섭 박우영 박웅희 박원순 박원지 박유순 박윤(서울대천사 21) 박윤경 박윤경 박윤배 박윤숙 박윤영 박윤자 박윤주 박윤주 박윤중 박윤희 박윤희 박은미 박은미 박은선 박은수 박은숙 박은숙 박은식 박은영 박은영 박은우 박은주 박은주 박은주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박은하 박은혜 박은희 박은희 박인규 박인기 박인섭 박인숙 박인주 박인준 박인혁 박일순 박일주 박일준 박자연 박재경 박재균 박재륭 박재석 박재성 박재송 박재신 박재영 박재영 박재우 박재율 박재현 박재현 박재현 박재홍 박재홍 박정 박정구 박정규 박정규 박정규 박정길 박정례 박정례 박정미 박정미 박정미 박정서 박정선 박정순 박정옥 박정옥 박정욱 박정원 박정은 박정은 박정재 박정찬 박정하 박정현 박정혜 박정호 박정훈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Jessica) 박종강 박종관 박종국 박종권 박종덕 박종락 박종명 박종명 박종모 박종민 박종민 박종범 박종선 박종성 박종숙 박종은 박종진 박종진 박종택 박종필 박종하 박종해 박종호 박종환 박종환 박종훈 박주련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박주원 박주현 박주현 박주호 박주희 박준건 박준규 박준모 박준빈 박준철 박준필 박준현 박준형 박중근 박중록 박중식 박중완 박중하 박지민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영 박지윤 박지윤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환 박진 박진교 박진규 박진애 박진영 박진용 박진용 박진우 박진우
박진우 박진주 박진해 박진환 박진휘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차홍 박찬 박찬민 박찬영 박찬영 박찬응 박찬이 박찬익 박창규 박창근
박창기 박창기 박창원 박창제 박창조 박채순 박철세 박철운 박철주 박철준 박철현 박춘미 박춘식 박춘우 박춘화 박춘희 박출석 박치득 박치현
박치현 박태강 박태민 박태서 박태수 박태영 박태우 박태원 박태일 박태환 박택수 박택수 박택현 박토마스상진 박필근 박하늘 박한규 박한솔
박한수 박항기 박해숙 박해연 박행복 박헌민 박현 박현미 박현미 박현민 박현석 박현수 박현숙 박현숙 박현숙 박현숙 박현식 박현우 박현운
박현주 박현주 박현준 박현진 박현호 박형규 박형규 박형실 박형열 박형옥 박형욱 박형준 박형진 박혜경 박혜란 박혜란 박혜란 박혜련 박혜림
박혜림 박혜미 박혜선 박혜성 박혜숙 박혜윤 박혜정 박호규 박호순 박호영 박호정 박호황 박홍규 박홍규 박홍규 박홍우 박홍종 박홍희 박효득
박효석 박효주 박효진 박효진 박훈석 박흥수 박희경 박희선 박희숙 박희영 박희용 박희진 반미희 반민규 반승아 방귀녀 방기관 방명세 방서은
방성욱 방세근 방순홍 방용주 방윤규 방은진 방인애 방정재 방지현 방지형 방혜원 방호정 배건호 배경혜 배경훈 배광현 배금옥 배동인 배민경
배민혜 배민희 배병우 배상수 배상호(3.6.9.12) 배선화 배성룡 배성준 배성환 배소라 배소영 배수연 배수진 배수호 배숙영 배순희 배애진
배양숙 배영민 배영술 배영욱 배영진 배영호 배용태 배원열 배유리 배윤영 배윤호 배은경 배은영 배장만 배재경 배정숙 배정연 배정자 배정화
배정훈 배정훈 배종언 배종현 배지우 배태영[백두엔지니어링] 배해진 배현주 배현주 배현지 배후민 배흥선 백가희 백경은 백경호 백경희
백광재 백광현 백기석 백기수 백낙현 백다함 백단 백대현(서울대천사 21) 백덕의 백락성 백명숙 백명진 백목윤 백미순 백민정 백석인 백선기
백선익 백소라 백소희 백수연 백승동 백승아 백승애 백승영 백승인 백승인 백승철 백승헌 백승훈 백양순 백연기 백용기 백용진 백원석 백윤애
백은옥(하나-둘-셋!) 백인화 백재숙 백재현 백정숙 백정연 백종운 백종찬 백지성 백진자 백해정 백현욱 백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경희
변광석 변규강 변동걸 변선미 변세광 변수지 변애숙 변재승 변지숙 변찬란 변채옥 변한식 변현숙 보청스님 복일해 봉기순 봉민숙 봉원길
봉재원 봉혜영 부근림 부윤경 부윤경 북로그컴퍼니 불쏘시개 서경득 서경민 서경임 서경주 서광미 서기원 서기호 서난원 서덕환 서동미
서동필 서동혁 서동훈 서매순 서맹순 서명숙 서명순 서명옥 서명호 서미란 서미송 서미정 서미희 서민경 서민아 서민욱 서민정 서병옥 서병훈
서상교 서상문 서상서 서상인 서석태 서선경 서선미 서선욱 서성란 서성민 서성지 서성철 서세영 서송자 서수형 서슬기 서승만 서승범 서승희
서여진 서영덕 서영빈 서영수 서영주 서영호 서예린 서예진 서용철 서우정 서운석 서원명(임영옥) 서원석 서원준 서유경 서유경 서윤미
서윤수 서윤숙 서윤진 서은석 서은선 서은영 서장석 서장호 서재규 서재철 서정보 서정순 서정원 서정자 서정호 서정호 서정희 서종찬 서종호
서주형 서준호 서지수 서지영 서지원 서지혜 서진권 서창원 서철원 서충모 서한석 서한솔 서현희 서형수 서혜경 서혜승 서혜진 서희경 서희석
서희숙 서희용 석갑주(법린) 석기석 석락희 석미선 석상열 석애리 선권수 선동기 선미라 선소희 선영숙 선윤식 선진아 선태섭 선학수 선현주
설순일 설정환 설호정 성갑선 성공스님 성기용 성기홍 성기화 성기환 성낙진 성낙현 성만순 성명숙 성미경 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성상희
성수현 성숙경 성순근 성영실 성영주 성예종 성외관 성윤식 성윤주 성종남 성종훈 성창민 성치훈 성현정 성현주 성혜경 성희록 소단영 소병문
소순일 소여정 소영수 소은경 소진숙 소홍섭 손경희 손기순 손동후 손두영 손명세 손명숙 손명숙 손미선 손민지 손민진 손별 손보미 손상목
손석용 손석진 손선숙 손성실 손성실 손성원 손수경 손수경 손수미 손언희 손열 손영미 손영숙 손영우 손영재 손영진 손영환 손은희 손재선
손정아 손정욱 손정현 손정환 손주성 손주현 손주희 손주희 손준혁 손지열 손지훈 손진영 손진우 손진운 손해윤 손행규 손희호 송건 송경림
송경숙 송경희 송경희 송교성 송교필 송근우 송금태 송금희 송기원 송기택 송기호 송기호 송길섭 송난근 송대화 송명환 송미림 송민재 송병관
송병주 송병채 송복자 송석호 송석희 송선아 송선화 송소연 송소연 송수완 송수진 송수진 송숙영 송순임 송순화 송순희 송승률 송승민 송아영
송연숙 송연희 송영덕 송영선 송영우 송영희 송예순 송예진 송요환 송용숙 송용철 송용호 송용환 송유경 송유철 송윤영 송은경 송인경 송인근
송인준 송자은 송장식 송재성 송재순 송재영 송재택 송정만 송정순 송정순 송정옥 송종대 송종호 송준아 송지민 송지연 송지연 송지은 송진수
송진호 송창룡 송창석 송창윤 송창헌 송철호 송추향 송치용 송태국 송태근 송태호 송택진 송하복 송하진 송학선 송향숙 송헌석 송혁기 송현숙
송현우 송현진 송형주 송형진 송혜경 송혜미 송혜섭 송혜승 송혜정 송호종 송후용 송희진 승성신 승현 시명준 식동 신건영 신경숙 신경식
신경아 신경희 신경희 신광수 신권수 신권익 신규철 신나영 신대철 신덕순 신도형 신도환 신동균 신동기 신동기 신동립 신동미 신동식 신동우
신동윤 신동조 신동호 신동훈 신동훈 신두철 신만승 신명애(현암스님) 신명철 신명철 신명훈 신문섭 신미숙 신미숙 신미순 신미자 신미혜
신미화 신민경 신병철 신보영 신봉승 신상규 신상열 신서경 신석민(서울대천사 21) 신선미 신선화 신성숙 신성식 신성택 신성호 신세민
신소영 신소예 신솔이 신수동 신수영 신수임 신숙 신순덕 신순배 신슬기 신승백 신승우 신승은 신아영 신영수 신영숙 신영철 신영희 신외순
신용균 신용돈 신용식 신욱재 신원철 신유미 신유철 신윤희 신은미 신은미 신은수 신은아 신은지 신은호 신은희 신의선 신일현 신재연 신재완
신재위 신재호 신재홍 신재홍 신정모 신정숙 신정아 신정원 신정자 신종덕 신종태 신종희 신주화 신지훈 신진수 신찬수 신철호 신충섭 신태철
신태호 신하얀 신해영 신현만 신현주 신현추 신현환 신현희 신현희 신혜숙 신혜원 신혜원 신혜진 신혜진 신호재 신호창 신호철 신홍익 신효진
심광식 심규호 심동우 심명식 심민자 심상권 심상돈 심상란 심석태 심선령 심선숙(무구스님) 심선희 심성은 심수미 심수미 심수영 심승례

심영구 심영섭 심옥령 심우만 심우영 심우진 심원보 심은영 심의용 심인보 심일보 심재민 심재복 심재진 심재호 심정숙 심정희 심준보 심지연
심지영 심창현 심한희 서혜정 심현구 심현정 심현정 심혜숙 아영창 안강회 안경남 안관옥 안광수 안광원 안국진 안금희 안기대 안나혜 안난숙
안다연 안도솔 안동균 안명준 안문숙 안미선 안미연 안미영 안미희 안미희 안민영 안병용 안병조 안병직 안보연 안보영 안복민 안부빈 안상동
안상현 안석순 안선 안선영 안성룡 안성민 안성배 안성진 안성항 안성호 안세영 안세웅 안세주 안수진 안숙환 안순억 안슬기 안승문 안승봉
안연숙 안영규 안영도 안영순 안영은 안영환 안예리 안용덕 안원경 안유경 안은경 안은미 안은송 안은해 안은혜 안재명 안재철 안재현 안재형
안재홍 안재환 안정경 안정숙 안정아 안정옥 안정호 안정희 안종록 안종배 안종범 안종복 안준관 안준철 안준현 안중락 안지영 안지윤 안진경
안진우 안진환 안철택 안치용 안태건 안태경 안태운 안택영 안향미 안현희 안형숙 안형주 안형주 안혜란 안혜신 안혜영 안혜정 안혜진 안화연
양갑현 양강현 양경모 양경숙 양경애 양권일 양근서 양금식 양금주 양금주 양기근 양기환 양다미 양다솔 양동현 양동화 양명균 양문숙 양문실
양미자 양미자 양민승 양민영 양민영(김지우) 양병이 양병찬 양봉숙 양삼승 양상철 양석원 양성주 양세훈 양수진 양숙자 양승득 양승조
양승철 양승철 양승철 양승호 양승훈 양시원 양연식 양영선 양영수 양영희 양완범 양왜석 양용준 양우임 양우제 양원태 양유라 양유정 양윤정
양은혜 양의모 양인숙 양인숙 양재덕[실업극복인천본부] 양재우 양재학 양전욱 양정순 양정혜 양정훈 양종희 양준모 양지선 양지선 양지혜
양진원 양진원 양진주 양창영 양창익 양춘승 양충모 양태열 양태용 양태훈 양태희 양택관 양향숙 양혁승 양혜선 양혜연 양호식 양효정 양희경
양희정 양희진 어관 어문정 어수갑 어원선 어윤재 엄경미 엄경옥 엄금희 엄기영 엄대진 엄상현 엄선자 엄영현 엄용태 엄유진 엄정미 엄정헌
엄준호 엄지선 엄진영 엄태주 엄현 엄현주 엄현진 여명숙 여봉규 여상구 여설란 여순이 여승철 여옥분 여은정 여은희 여진수 여채영 여태전
여현덕 여현호 여혜선 여희승 연구흠 연규일 연만봉 연만희 연성만 연숙진 연용호 연제훈 연지현 연희경 염건 염경형 염기석 염기웅 염영하
염영화 염창범(정유선) 염태열[백두엔지니어링]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예병관 예성옥 예종현 예향순 오가을 오강임 오경근 오경수 오경순
오광현 오권도 오규환 오근숙 오남성 오남준(전라도닷컴) 오대균 오동운 오동하 오동현 오명철 오문섭 오문수 오미령 오미석 오미숙 오미영
오미영 오미일 오민석 오민웅 오민조 오백록 오병집 오분임 오상연 오상택 오상현 오상현 오석조 오석호 오선아 오선예 오설자 오성남 오성률
오성헌 오성환 오성훈 오성희 오세미 오세연 오세정(서울대천사 21) 오세진 오세희 오수경 오수권 오순옥 오승석 오승재 오승호 오승환
오아영 오연석 오연호 오영임 오영진 오영택 오영희 오예진 오예진 오용주 오용탁 오우식 오유라 오유진 오유진 오윤옥 오윤지
오은이(3,6,9,12) 오응완 오인규 오인하 오재록 오재열 오정미 오정열 오정은 오정화 오정화 오정환 오종선 오종혁 오종환 오주평 오주현
오준영 오지연 오지영 오지헌 오진욱 오진탁 오차남 오창섭 오창진 오채현 오철수 오충섭 오태훈 오태희 오한섭 오행자 오혁진 오현경 오현석
오현숙 오현순 오현실 오현자 오현주 오형준 오형진 오희라 옥윤근 옥진호 옥창연 옥흠 왕미진 왕준연 왕지웅 왕창순 용윤실 우건곤 우경남
우경숙 우경옥 우국희 우더함 우명주 우미옥 우성란 우성민 우수진 우시언 우영숙 우영진 우원식 우원우 우인규 우인덕 우인철 우주호 우지희
원귀영 원기준 원동희 원명(정유섭) 원명희 원삼규 원성남 원유광 원유정 원윤희 원은선 원응호 원재희 원정희 원종우 원진철 원진희 원희룡
원희룡 위서현 위혜란 유건봉 유건일 유경숙[백두엔지니어링] 유경희 유광곤 유광희 유귀숙 유금자 유기준 유길문 유난희 유남실 유대근
유덕수 유덕열 유동애 유동환 유두련 유록상 유리매 유명숙 유명호 유무종 유미선 유미영 유민규 유민욱 유민재 유병권 유병창 유보성 유복재
유상모[백두엔지니어링] 유서희 유선 유선욱 유선희 유성열 유성일 유성호 유성환 유세종 유세종 유송이 유송화 유수림 유수연 유수진 유순신
유승우 유승혁 유승희 유시은 유시주 유시주 유시춘 유시현 유신봉 유신우 유양순 유영구 유영글 유영길 유영만 유영숙 유영아 유영아 유영종
유영표 유영화 유옥이 유요섭 유용덕 유용문 유원금 유윤식 유윤희 유은미 유의연 유익 유익상 유인선 유인영 유인창 유일상 유일선 유장현
유장현 유장휴 유재경 유재경 유재경 유재광 유재민 유재부 유재철 유재청 유재현 유재형 유재훈 유정옥 유정현 유정화 유종삼 유종혁 유주희
유준상 유준열 유지나 유지명 유지숙 유지웅 유지혜 유진 유창현 유철준 유탁균 유토피아추모관 유필우 유하늘 유학도 유한근 유해리 유해진
유현 유현영 유현정 유현지 유형근 유형근 유혜정 유호현 유회종 유흥숙 유희숙 육기승 육지원 윤갑성 윤경아 윤경자 윤경춘 윤경희 윤광호
윤귀림 윤규식 윤기훈 윤길자 윤나래 윤나현 윤능호 윤다옥 윤다혜 윤대승 윤대원 윤덕규 윤도식 윤명숙 윤모아 윤미 윤미경 윤미라 윤미영
윤미정 윤병국 윤병옥 윤보현 윤복자 윤빈 윤삼호 윤상구 윤상구 윤상일 윤서연 윤석금 윤석금 윤석양 윤석진 윤석철 윤선경 윤선규 윤선영
윤선자 윤선정 윤선화 윤성구 윤성구 윤성근 윤성순 윤성원 윤성진 윤성혜 윤성호 윤성희 윤소영 윤송지 윤수영 윤수현 윤숙경 윤숙자 윤순매
윤순영 윤순중 윤순진 윤승용 윤승용 윤승현 윤승희 윤신요 윤아란 윤애숙 윤여림 윤여선 윤여임 윤여진 윤연숙 윤영미 윤영설 윤영소 윤영순
윤영재 윤영주 윤영주 윤영주 윤영호 윤용석 윤용숙 윤용운 윤용출 윤용혁 윤용현 윤용희 윤웅섭 윤유석 윤은선 윤응덕 윤인발 윤인보 윤인숙
윤인철 윤재호 윤재훈 윤재훈 윤재훈 윤정덕 윤정숙 윤정원 윤정현 윤정혜 윤정화 윤제용 윤제인 윤종섭 윤종숙 윤주미 윤주원 윤주진 윤주호
윤지민 윤지상 윤지상 윤지영 윤지영 윤지원 윤진기 윤진수 윤진호 윤철 윤철원 윤철주 윤초원 윤춘희 윤태선 윤행석 윤헌식 윤현 윤현상
윤현수 윤현재 윤현정 윤현주 윤혜정 윤혜진 윤혜진 윤홍구 윤화정 윤효덕 윤효주 윤희 윤희 윤희정 은수진 은영 은정인 은정주 은지영 은탁
은태숙 은혜경 이 정옥 이가연 이가현 이갑성 이갑수 이갑수 이강래 이강산 이강산 이강석 이강성 이강오 이강오 이강율 이강은 이강일

이강주 이건행 이건환 이건흥 이경균 이경기 이경남 이경무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민 이경민 이경민 이경복
이경선 이경수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아 이경애 이경애 이경열 이경영 이경용 이경우 이경우 이경욱
이경은 이경은 이경이 이경임 이경자 이경종 이경진 이경진 이경진 이경찬 이경찬 이경철 이경현 이경현 이경혜 이경호 이경호 이경훈 이경훈
이경훈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림 이계성 이계안 이계중 이계홍 이광기 이광렬 이광연 이광연 이광우
이광이 이광호 이국노 이국형 이권수 이권의 이권희 이귀보 이귀선 이귀희 이규백 이규복 이규봉 이규완 이근국 이근배 이근영 이근우 이근정
이근창 이근행 이근화 이근희 이금상 이금순 이금자 이금주 이금천 이금휘 이기라 이기선 이기섭 이기연 이기원 이기자 이기준 이기호 이기훈
이길용 이길우 이길홍 이나라 이나래 이나미 이나연 이나영 이나원 이나윤 이난수 이난숙 이남석 이남석 이남연 이남옥 이남일 이남진 이남훈
이내경 이내옥 이다희 이달님 이대공 이대관 이대근 이대성 이대성 이대성 이대성 이대엽 이덕규 이덕기 이덕우 이덕우 이덕재 이도경 이도찬
이도현 이도훈 이동국 이동범 이동섭 이동섭 이동수 이동수 이동영 이동영 이동은 이동재 이동주 이동중 이동진 이동출 이동헌 이동현 이동헌
이동현 이동현(이재혁, 이재욱) 이동호 이동환 이동훈 이동훈 이두리 이두호 이득영 이득철 이란이 이리나 이마리아 이만구 이면의 이명곤
이명구 이명구 이명남 이명례 이명미 이명복 이명숙 이명숙 이명신 이명옥 이명주 이명진 이명호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몽
이무열 이문구 이문석 이문자 이문재 이문환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나 이미란 이미란 이미리 이미숙 이미식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자 이미자 이미자 이미정 이미정 이미정 이미정 이미지 이미진 이미진 이미행 이미화 이미희 이민규 이민숙 이민숙 이민아 이민애
이민애 이민영 이민정 이민정 이민종 이민지 이민진 이민형 이민호 이민호 이범 이범재 이병관 이병구 이병남 이병선 이병식 이병진 이병창
이병철 이병한 이병화 이병화 이병후 이보경 이보경 이보람 이보람 이보비 이보삼 이보연 이보영 이복록 이복성 이봉금 이봉숙 이봉용 이봉화
이산 이삼희 이상갑 이상구 이상규 이상규 이상길 이상덕 이상덕 이상동 이상록 이상림 이상미 이상미 이상민 이상민 이상범 이상봉 이상봉
이상비 이상승 이상연 이상연 이상열 이상엽 이상엽 이상옥 이상용 이상우 이상우 이상욱 이상운 이상웅 이상원 이상원
이상원[백두엔지니어링] 이상율 이상은 이상익 이상인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철 이상철 이상철(김은숙부인) 이상팔 이상학 이상헌 이상헌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형 이상호 이상호 이상호 이상화 이상환 이상효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새미[이종경:영수증발행시]
이새봄 이새하 이서영 이서영 이서철 이석경 이석규 이석모 이석문 이석배 이석원 이석형 이석훈 이석희 이선경 이선교 이선매 이선미 이선미
이선미 이선민 이선범 이선아 이선애 이선애 이선영 이선영 이선옥 이선우 이선임 이선진 이선형 이선홍 이선화 이선화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균 이성미 이성민 이성삼 이성심 이성요 이성용 이성우 이성은 이성은 이성은 이성인 이성일 이성일 이성자 이성재 이성전 이성주
이성준 이성진 이성진 이성호 이성호 이성희 이세라 이세옥 이세은 이세진 이세향 이세형 이세희 이소라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소윤
이송미 이송옥 이송현 이송희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이수광 이수남 이수남 이수내 이수빈 이수삼 이수아 이수안 이수열 이수열 이수전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형 이수호 이수환 이숙경 이숙련 이숙정 이숙향 이숙희 이순금 이순녀 이순녀 이순덕 이순례 이순아
이순열 이순영 이순자 이순자 이순종 이순진 이순향 이순향 이슬기 이슬비 이슬비 이슬아 이승민 이승민 이승선 이승연 이승열 이승열 이승용
이승재 이승재 이승재 이승주 이승준 이승진 이승진 이승철 이승철 이승현 이승호 이승호 이승호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승희 이승희 이시경 이시내 이시연 이시우 이시윤 이시호 이신애 이신영 이신화 이아람 이아름 이아름 이안교 이양자 이양주 이양준 이양헌
이여진 이여진 이연(서울대천사 21) 이연민 이연빈 이연수 이연숙 이연재 이연주 이연주 이연호 이연희 이영경 이영경 이영구 이영기 이영란
이영복 이영선 이영선 이영선 이영섭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완 이영욱 이영음 이영일 이영일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이두례) 이영지 이영진 이영찬 이영철 이영춘 이영춘 이영택 이영학 이영한 이영한 이영호 이영호 이영희 이영희 이예소 이옥경
이옥금 이옥남 이옥선 이옥선 이옥성 이옥숙 이옥자 이옥자 이옥주 이온디 이완용 이왕건 이왕준 이용관 이용구 이용구 이용성 이용수 이용식
이용신 이용옥 이용원 이용준 이용태 이용훈 이용희 이우석 이우영 이우철 이욱자 이욱주 이운선 이웅범 이웅장 이원규 이원근 이원근 이원덕
이원도 이원명 이원목 이원보 이원분 이원상 이원재 이원진 이원진 이원혜 이유나 이유남 이유승 이유식 이유영 이유의 이유정 이유정 이유직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국 이윤모 이윤미 이윤배 이윤수 이윤아 이윤아 이윤아 이윤아 이윤지 이윤환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구 이은석 이은선 이은선 이은선 이은수 이은수 이은수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옥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지 이은직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형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을석 이을중 이응석 이응수 이응정 이응훈 이이숙 이익찬 이인규 이인근
이인동 이인석 이인선 이인성 이인숙 이인실 이인안 이인영 이인옥 이인주 이인태 이인호 이인희 이일권 이일숙 이일용 이일하(서울대천사
21) 이일학 이자영 이자영 이잠숙 이장령 이장한 이장형 이재갑 이재경 이재광 이재국 이재국 이재규 이재규 이재남 이재남 이재상 이재성
이재수 이재승 이재승 이재식 이재신 이재영 이재영 이재왕 이재우 이재윤 이재은 이재은 이재은 이재인 이재창 이재천 이재철 이재철 이재학
이재형 이재혜 이재화 이재환 이전영 이점미 이정구 이정국 이정국 이정규 이정규 이정근 이정근 이정기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석 이정석

이정선 이정선 이정식 이정애 이정애 이정언 이정연 이정열 이정열 이정옥 이정우 이정우 이정욱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이 이정임 이정자 이정재 이정찬 이정천 이정철 이정한 이정현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제명 이제학 이조희 이종근
이종근 이종기 이종기 이종명 이종미 이종봉 이종숙 이종순 이종식 이종아 이종오 이종우 이종욱 이종익 이종진 이종진 이종찬 이종찬 이종탁
이종택 이종학 이종학 이종학 이종헌 이종혁 이종혁 이종현 이종현 이종현 이종호 이주래 이주상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은 이주한
이주헌, 이지욱 이주현 이주형 이주호 이주홍 이주희 이주희 이준기 이준범 이준범 이준복 이준식 이준영 이준옥 이준용 이준원 이준행
이준혁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서울대천사 21) 이준화 이중성 이중욱(더불어숲) 이중호 이지선 이지선 이지선 이지섭 이지수
이지수 이지숙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원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중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호 이지홍 이지훈 이지희 이진 이진 이진 이진경 이진규 이진규 이진무 이진복 이진복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안 이진연 이진영 이진영 이진영 이진영3 이진주 이진하 이진형 이진호 이진호 이진홍 이진홍 이진화 이진휘 이진희
이진희 이진희 이찬우 이찬욱 이찬웅 이창국 이창근 이창분 이창섭 이창수 이창식 이창식 이창식 이창식 이창식 이창식 이창우 이창우 이창우 이창호
이채린 이채웅 이채원 이철 이철범 이철범(서울대천사 21) 이철수 이철영 이철원 이철현 이철호 이철훈 이청원 이청일 이청호 이초영 이춘로
이춘삼 이춘섭 이춘영 이충기 이충엽 이충희 이치삼 이태규 이태규 이태성 이태호 이태환 이태환 이태희 이태희 이택만 이택수 이하연 이하영
이하영 이하웅 이하주 이학남 이학희 이한구 이한나 이한성 이한순 이해규 이해동 이해란 이해식 이해영 이해영 이해영 이해원 이행규 이향림
이향림 이향미 이향숙 이향지 이혁재 이현 이현규 이현무 이현배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서울대천사 21) 이현심 이현애 이현영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준 이현진 이현창 이현철 이현하 이형균 이형모 이형범 이형숙 이형용 이형원
이형원 이형주 이형학 이형호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미 이혜민 이혜선 이혜수 이혜숙 이혜숙 이혜승 이혜연 이혜영 이혜영 이혜영 이혜옥
이혜원 이혜원 이혜인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호 이호경 이호광 이호군 이호규 이호상 이호석 이호섭 이호영 이호원
이호인 이호진 이호찬 이호창 이호혁 이호희 이홍관 이홍수 이홍재 이화숙 이화연 이화영 이화영 이화정 이화철 이화춘 이환철 이회선 이효근
이효순 이효진 이효진 이효진 이후술 이후승 이훈우 이휘성 이흥길 이희걸 이희경 이희경 이희관 이희란 이희민 이희봉 이희성 이희송 이희수
이희숙 이희순 이희애 이희영 이희욱 이희정 이희정 이희준 이희중 이희중 이희진 인광선 인성분 임가영 임경수 임경숙 임경화
임경화[중복등록] 임고운 임국진 임귀숙 임규원 임규진 임근래 임금 임기식 임나경 임나은 임나현 임나혜숙 임대윤 임대한 임대홍 임도경
임동준 임동진 임명택 임미경 임범진 임병석 임병욱 임병환 임보근 임복철 임상빈 임선숙 임설 임성미 임성주 임성훈 임세권 임세웅 임세원
임소정 임수오 임수진 임수현 임순영 임순이 임승국 임승남(현고스님) 임승룡 임승순 임승철 임승희 임양묵(임우기) 임여진 임영민 임영식
임영신 임영일 임영택 임영호 임용환 임우진 임웅환 임원근 임원식 임원택 임윤선 임윤진 임은경 임은미 임은선 임응순 임익수 임익철
임인규 임인우 임일빈 임자영 임재연 임재혁 임정문 임정미 임정빈 임정섭 임정숙 임정애 임정엽 임정원 임정은 임정임 임정태 임정택 임정호
임종두 임종진 임종표 임종호 임종희 임주영 임주현 임준엽 임준환 임중근 임지민 임지선 임지수 임지원 임진수 임진우 임찬수 임창규 임채기
임채숙 임채혁 임철우 임철진 임춘성 임춘재 임평규 임하정 임학상 임행미 임혁 임현석 임현정 임현진 임형식 임형신 임형욱 임형칠 임형택
임혜영 임혜인 임호수 임호택 임홍탁 임흥영 임희경 임희숙 임희영 임희은 임희택 장경민 장경옥 장경익 장경주 장경훈 장경희 장계화 장관우
장규성 장규식 장규완 장근화 장기석 장기수 장기혁 장나영 장난영 장다영 장대도 장도성 스님(장진환) 장동석 장동일 장동찬 장명옥 장미아
장미연 장미영 장미옥 장미정2 장미희 장민규 장민석 장병건 장병영 장병우 장병학 장보람 장복규 장복순 장분실 장상미 장석 장석자 장석한
장선례 장선진 장선희 장설자 장성만 장세양 장세훈 장송이 장수재 장수행 장순일 장승욱 장승종 장연규 장영근 장영덕 장영란 장영삼 장영현
장영희 장완익 장용진 장우철 장욱진 장원홍 장원홍 장유경 장유림 장유식 장유정 장유진 장윤숙 장윤정 장윤주 장윤희
장윤희[백두엔지니어링] 장은미 장은옥 장은정 장은주 장인기 장인욱 장일태 장재성 장재원 장재익 장재현 장재형 장정우 장정화 장종혁
장종호 장주영 장준근 장준선 장준영 장준화 장지연 장지훈 장진성 장진수 장진주 장찬호 장창덕 장창덕 장철희 장태동 장태복 장태성 장태영
장하늘다래 장학수 장한교 장한별 장한빛 장해린 장향자 장현 장현숙 장현정 장현철 장현희 장혜경 장혜경 장혜영 장혜정 장호성 장훈열
장훈철 장희선 장희영 장희정 전경배 전금 전금석 전기택 전남경 전남수 전달래 전대일 전동수 전명국 전명숙 전명순 전미선 전미진 전미화
전민구 전민주 전병관 전병길 전병두 전병은 전보인 전봉석 전빛이라 전상호 전선녀 전선희 전선희 전선희 전성애 전성철 전성호 전세진
전소영 전수연 전수진 전수현 전순림 전승영 전시은 전영숙 전영원 전예준 전예진 전옥경 전용원 전우배 전유미 전유진 전은영 전은홍 전자영
전자영 전장곤 전재석 전재연 전재오 전재홍 전재환 전정식 전정연 전제국 전조민 전종우 전준범 전준형 전준호 전지영 전지은 전지은 전지인
전지호 전진 전진아 전진영 전진호 전창열 전평 전하민 전하얀 전하영 전향란 전현미 전현주 전형구 전형준 전혜숙 전혜원 전혜정 전홍식
전환주 전휘영 전희식 정가윤 정갑식 정건화 정경모 정경미 정경수 정경숙 정경애 정경옥 정경은 정경화 정경회 정광모 정광선 정광순 정광식
정광영 정광필 정광희 정구영 정권화 정귀옥 정규옥 정규호(시나브로) 정근희 정금자 정금자 정금채 정기남 정기선 정기연 정기웅 정기은

정기자 정기재 정기채 정기홍 정기훈 정길자 정길정 정나리 정낙섭 정낙식 정남선 정남수 정남훈 정녕희 정다영 정다운 정다운 정다인 정다정 정대동 정대이 정대진 정동규 정동명 정동엽 정동욱 정동희 정두만 정만섭 정만순 정명일 정명희 정무경 정무원 정문교 정문선 정문식 정문영 정문희 정미경 정미나 정미남 정미선 정미선 정미영 정미영 정미영[1] 정미화 정미화 정미화 정미희 정민경 정민성 정민자 정민혁 정버들 정범성 정병길 정병수 정병업 정병오 정병조 정병진 정병화 정보람 정보영 정봉훈 정삼례 정삼숙 정상국 정상국 정상규 정상기 정상덕 정상룡 정상오 정상택 정석준 정석중 정선영 정선옥 정선주 정선화 정성국 정성락 정성만 정성미 정성섭 정성욱 정성욱 정성일 정성일 정성일 정성호 정성훈 정성훈 정성희 정세영 정세용 정세주 정세진 정세진 정세훈 정소영 정소영 정수미 정수아 정수연 정수열 정수원 정수진 정수진 정수현 정숙영 정숙영 정숙영 정숙영 정순남 정순미 정순애 정순애 정순진 정승균 정승우 정승재 정시경 정시언 정아연 정아영 정애숙 정애진 정양기 정양심 정연근 정연수 정연신 정연옥 정연중 정연희 정연희 정연희 정영규 정영기 정영란 정영배 정영석 정영아 정영오 정영옥 정영옥 정영이 정영이 정영일 정영자 정영주 정영주 정영택 정영현 정영훈 정영희 정예경 정예송 정옥경 정옥희 정용선 정용선 정용우 정용욱 정용운 정용재 정용철 정용택 정우성 정우식 정우용 정우훈 정운봉 정원모 정원희 정유락 정유리 정유석 정유진 정유화 정윤복 정윤상 정윤희 정윤희 정윤희 정윤희 정은 정은 정은경 정은경 정은미 정은선 정은선 정은숙 정은정 정은주 정은주 정은주 정은혁 정은화 정을호 정의선 정의숙 정의진 정의헌 정이규 정익교 정인경 정인숙 정인조 정인학 정인환 정일영 정자원 정장희 정재국 정재근 정재선 정재선 정재식 정재우 정재윤 정재윤 정재정 정재현 정재홍 정재훈 정재훈 정정섭 정정옥 정정윤 정정훈 정제봉 정종경(서울대천사 21) 정종근 정종일 정종혁 정주연 정주영 정주형 정주혜 정준 정준모 정준용 정준원 정준효 정지선 정지숙 정지순 정지영 정지영 정지영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원 정지원 정지윤 정지은 정지은 정지혜 정진섭 정진수 정진수 정진영 정진영 정진옥 정진우 정진우 정진철 정진행 정진희 정진희 정찬영 정찬용 정찬은 정찬후 정찬섭 정창수 정창훈 정창훈 정채남 정천식 정철운 정철현 정철호 정태문 정태수 정태영 정태중 정태흠 정택동(서울대천사 21) 정필흥 정하영 정하중 정한나 정한성 정해경 정해원 정헌호 정혁진 정현경 정현모 정현숙 정현순 정현정 정현진 정현철 정현태 정형자 정혜경 정혜영 정혜옥 정혜욱 정혜인 정혜정 정혜진 정호근 정홍철 정화영 정환수 정회정 정효선 정효순 정효은 정효주 정효진 정흥락 정희경 정희곤 정희도 정희상 정희석 정희수 정희수 정희수(정성우) 정희숙 정희숙 정희옥 정희자(광용스님) 정희정 정희정 제미경 제미림 제유미 제윤경 제종훈 제희원 조강복 조강숙 조강훈 조경남 조경래 조경래 조경래 조경선 조경숙 조경순 조경식 조경실 조경아 조경오 조계숙 조계현 조관연 조광연 조국진 조권희 조규완 조규주 조금산 조금희 조기선 조기현 조길용 조난이 조남권 조대연 조대일 조대현 조동희 조두헌 조명근 조명제 조명진[울돌목가는길 대표] 조명현 조명화 조명환 조문숙 조문주 조문주 조미숙 조미은 조미정 조민 조민경 조민정 조민호 조병란 조병영 조병웅 조보아 조복순 조비아 조상귀 조상민 조상희 조서은 조석윤 조선희 조선희 조선희 조성권 조성남 조성민 조성범 조성빈 조성연 조성오 조성재 조성전 조성제 조성환 조성훈 조성희 조성희 조세연 조송현 조수영 조수현 조숙영 조순동 조승연 조아라 조아영 조아진 조애영 조양희 조연미 조연주 조연주 조영균 조영란 조영복 조영석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진 조영철 조영철 조영현 조영호 조영호 조영화 조예진 조용건 조용경 조용남 조용승 조용언 조용임 조용진 조용학 조용환 조우 조우경 조원봉 조원철 조원희 조유나 조유진 조유호 조윤영 조윤위 조윤임 조윤주 조윤주 조윤지 조은경 조은구 조은미 조은선 조은송 조은수 조은영 조은영 조은정 조은정 조은정(지새는달) 조은진 조은하 조은현 조은현 조은혜 조은희 조일성 조장래 조재광 조재범 조재억 조재원 조재화 조정민 조정숙 조정식 조정우 조정윤 조정은 조정은 조정현 조정화 조정훈 조정희 조정희 조제희 조종한 조주연 조준우 조준화 조중연 조지선 조지연 조지영 조지형 조진경 조진귀 조진영 조진현 조진희 조창근 조창순 조창현 조채윤 조천호 조춘원 조태경 조태민 조태호 조택승 조한종 조항미 조항원 조해수 조현규 조현규 조현숙 조현우 조현정 조현정 조현정 조현정 조현주 조현준 조현하 조현희 조현희 조형곤 조형열 조형은 조형준 조혜련 조혜민 조혜숙 조혜원 조혜원 조혜진 조호상 조호정 조훈철 조희정 종인선 주경 주경남 주경선 주귀련 주귀환 주금숙 주다영 주민우 주민지 주성복 주성희 주세림 주승용 주연정 주영애 주윤식 주정일 주종훈 주중식 주중연 주지연 주지혜 주창호 주필숙 주현정 주형선 주혜선 주홍태 주희 지경배 지경숙 지광철 지덕근 지도연 지리산해피닷컴(주)-박용규 지리산해피닷컴(주)-박용규 지민희 지상현 지석구 지선경 지선명 지선영 지선영 지연 지영 지오 지용수 지우건설(나상윤) 지유나 지윤정 지은영 지은주 지정순 지찬형 지현정 지효영 지희진 지희진(3.6.9.12) 진경선 진경연 진규엽 진동원 진명희 진민경(문자수신거부) 진방주 진상민 진수경 진신정 진안민 진영균 진영민 진영성 진용선 진우삼 진은주 진재선 진정훈 진창호 진태준 진하늘 진하람 진화스님 차경구 차경천 차국린(서울대천사 21) 차다은 차명례 차미경 차민경 차선주 차성현 차순덕 차순영 차승주 차승현 차영미 차영석 차영옥 차윤정 차윤호 차의복 차지수[피아씨코리아(주)] 차진영 차철욱 차하늘 차호석 채갑석 채경은 채덕기 채명정 채미경 채석봉 채수덕 채숙희 채승우 채영길 채영수 채옥경 채준호 채지연 채현실 채희경 채희령 처로 천경송 천경희 천관희 천미영 천상혁 천서영 천성규 천성기 천영섭 천우철 천재박 천창호 천하람 천현주 천홍주 최가람 최갑진 최강근 최강락 최강열 최경련 최경식 최경아 최경웅 최경화 최경환 최경희 최경희 최고은 최관현 최광림 최광재 최광진 최광필 최국모 최규택 최규호 최금덕 최금주 최기동 최기영 최나현 최남춘 최다루 최대문 최대호 최대호 최덕만 최덕호 최도선 최도은 최동규 최동근 최동석 최동식 최동주 최동준 최맹림 최명선(산타루치아) 최명섭 최명순

최명자 최명진 최명진(3.6.9.12) 최명철 최명철 최명환 최명환(홍경희) 최명희 최문성 최문순 최문용 최문정 최문주 최문헌 최문혁 최문혁 최문휴 최문희 최미리 최미숙 최미옥 최미옥 최미화 최미희 최민규 최민영 최민준 최병대 최병수 최병일 최병재 최병준 최병태 최병호 최보경 최보라미 최보영 최보윤 최복천 최본 최봄 최봉남 최봉노 최봉주 최부휴 최상백 최상용 최상찬 최서영 최서윤 최석구 최석근 최석호 최선아 최선애 최선옥 최선재 최선희 최선희 최성범 최성신 최성열 최성원 최성종 최성현 최성환 최성희 최세규 최세규 최세문 최세영 최세정 최세창 최소연 최소영 최소현 최송인 최송현 최송휴 최수아 최수정 최수정 최수지 최수진 최수희 최숙명 최순희 최승관 최승국(3,6,9,12) 최승권 최승민 최승연 최승일 최승춘 최승태 최승현 최신현 최신형 최실경 최양수 최양수 최연실 최연율 최영 최영 최영구 최영란 최영리 최영봉 최영선 최영숙 최영숙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인 최영재 최영주 최영주 최영환 최영훈 최영희 최영희 최예경 최예라 최완규 최용관 최용배 최용석 최용수 최용수 최용환 최용환 최욱 최운열 최웅집 최원민 최원상 최원석 최원일 최원진 최원호 최유리 최유미 최유선 최유진 최윤규 최윤선 최윤임 최윤정 최윤진 최윤진 최윤필 최윤희 최윤희 최은 최은석 최은숙 최은아 최은영 최은영(서울대천사 21) 최은정 최은하 최은혜 최을영 최의성 최의수 최이교 최인순 최일주 최임식 최재석 최재성 최재식 최재원 최재일 최재혁 최재형 최재호 최정규 최정금 최정미 최정심 최정아 최정아 최정애 최정욱 최정윤 최정윤 최정자 최정표 최정현 최정현 최정혜 최정혜 최정희 최정희 최정희 최종남 최종민 최종범 최종선 최종식 최종철 최종헌 최종현 최주영 최주용 최준석 최준성 최준영 최준혁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지영 최지혜 최지희 최진경 최진규 최진백 최진식 최진영 최진욱 최진주 최진희 최진희 최진희 최차숙 최창숙 최창열 최철규 최철수 최철수 최춘식 최태림(서울대천사 21) 최태복 최태선 최태섭 최태훈 최한창 최혁성 최현 최현미 최현석 최현숙 최현정 최형식 최형욱 최형재 최형준 최형필 최혜경 최혜령 최혜선(서주연) 최혜연 최혜영 최호령 최호열 최홍덕 최홍원 최홍준 최홍철 최환규 최훈군 최흥택 최희연 최희윤 최희자 최희준 최희천 추노을 추성권 추영 추준호 추창식 추화린 카멜레온 탁무권 탁수진 탁준민 탁현민 탐진강 태궁종합건설(주) 태윤정 팽춘화 편정자 편화선 표혜정 피소현 필원태 하가은 하경숙(늘봄노인복지센터) 하규운 하나미 하늘 하동구 하동선 하만두 하미혜 하상영 하상윤 하성식 하성자 하성주 하성호 하수경 하수정 하순영 하연경 하영석 하영석 하영숙 하옥남 하은정 하재남 하재민 하재웅(참여공유개방) 하재천 하재훈 하정관 하정혜 하정화 하종강 하종인 하진연 하창용 하태동 하헌옥 하현정 하효진 한갑선 한갑수 한건희 한경미 한경석 한경아 한경애 한경혜 한경희 한광자 한귀현 한규애 한금희 한긍수 한기성 한기암 한기찬 한기철 한기풍 한대균 한대홍 한덕진 한동열 한동우 한동현 한동희 한만엽 한만일 한만회 한명규 한명선 한명순 한명순 한명자 한명희 한미경 한미라 한미선 한미영 한병철 한보석 한부익 한빛 한상국 한상수 한상욱 한상욱 한상의 한상현 한석규 한선경 한선자 한선희 한선희 한성교 한성규 한성주 한성진 한성철 한성호 한세황 한솔희 한송이 한송화 한송희 한수정 한수현 한숙희 한순웅 한순철 한승동 한승아 한승창 한아영 한애경 한양재 한연규 한영란 한영수 한영순 한영주 한영희 한옥민 한우정 한원화 한윤희 한은수 한의석 한인애 한재호 한정석 한정석 한정옥 한정인 한정태 한정한 한정화 한정훈 한정희 한종한 한주동 한주호 한주희 한준 한지나 한지수 한지혜 한진경 한진우 한창규 한창석 한철희 한학수 한현수 한혜경 한혜영 한호 한호정 한호형 한홍택 한효녀 한흥기 한희숙 한희정 함경숙 함별 함상선 함승희 함식 함영숙 함오연 함용학 함운경 함재연 함정희 함종수 함지훈 함철 허경태 허금숙 허명희 허민 허병두 허석 허선 허선 허성수 허성식 허성철 허순영 허신용 허신행 허안숙 허연화 허영성 허옥경 허욱 허유정 허윤선 허윤정 허은석 허은영 허은정 허은주 허은혜 허의 허인 허인리 허재영 허정도 허정민 허정숙 허주형 허준연 허진란 허진영 허진영 허찬국 허창무 허태혁 허향진 허현수 허혜인 허호 허호 현경미 현도관 현동수 현동헌 현미선 현미열 현범휘 현상진 현승자 현우택 현종철 현창국 현효원 형은수 홍갑선 홍경표 홍경희 홍규창 홍기종 홍남기 홍남기 홍남석 홍남숙 홍덕표 홍두준 홍문권 홍문수 홍미숙 홍봉선 홍사웅 홍샘 홍석규 홍석규 홍선미 홍선미 홍선주 홍성덕 홍성미 홍성민 홍성영 홍성완 홍성완 홍성호(다성스님) 홍세미 홍소영 홍수자 홍순경 홍순미 홍순정 홍순창 홍승아 홍승아 홍승조 홍승현 홍쌍리 홍아민 홍영기 홍영림 홍영임 홍운기 홍원석 홍유식 홍유진 홍윤기 홍윤석 홍윤영 홍은지 홍은희 홍인식 홍인영 홍임정 홍재경 홍정구 홍정림 홍정표 홍정호 홍제남 홍종순 홍종여명 홍주선 홍주연 홍주의 홍준표 홍준희 홍지영 홍지혜 홍지희 홍진표 홍찬선 홍창근 홍창선 홍태철 홍한나 홍향표 홍혁수 홍현선 홍현주 홍혜숙 황가람 황경희 황광연 황국상 황근영 황금성 황금주 황금희 황기성 황길식 황대식 황덕연 황도원 황동근 황명철 황명화 황미연 황민주 황병태 황보경 황보주철 황상민 황상욱 황상철 황상훈 황서현 황선봉 황선영 황선옥 황선주 황선중 황선혜 황성식 황성용 황성주 황수영 황수일 황수진 황순복 황순봉 황순애 황아미 황영미 황영미 황영민 황영섭 황영수 황영숙 황영우 황영욱 황영철 황영희 황예환 황용운 황우진 황원형 황윤경 황윤숙 황윤애 황윤정 황윤정 황윤주 황은경 황은미 황은자 황은하 황은희 황의노 황의동 황의수 황의훈 황이인주 황인규 황인석 황인성 황인숙 황인옥 황인철 황재순 황정옥 황정원 황정하 황정현 황정환 황제영 황주란 황주석 황주홍 황지하 황진선 황진우 황찬익 황창렬 황태영 황태주 황해원 황해진 황혜란 황혜진 황호정 황효진 황효진 황효진 황희진 효진 HEWITTAS(휴잇어소시엇츠코리아유한회사) JSB Inc.(주)제이에스비아이엔씨 (주) 도서출판 푸른숲 (주)나무공작소 (주)늘봄프로덕션_이재수 (주)도움과나눔 (주)동림종합조경 (주)레오메딕스(조용진) (주)리서치플러스 (주)미네랄바이오 (주)엠투소프트 (주)일양코포레이션_오충일 (주)재승출판 (주)지오모니터링_김선웅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 지역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 일꾼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1 **송산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천승룡 외 저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2 **이천동, 도시의 옛 고향**
최엄윤 저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3 **우리 시대의 커뮤빌더**
김기현 저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4 **연안테제, 연안사회를 조직하라**
김갑곤 저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5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정보연 저 | 9,000원 | 이매진 | 2007.9.21

6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_ 우리동네 에너지 농부 이야기
이유진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8.1.10

7 **순천만, 시민사회 물결치다**
박두규 저 | 9,000원 | 이매진 | 2008.1.10

8 **5.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류동훈 저 | 9,000원 | 이매진 | 2008.1.10

9 **골목을 걷다** _ 이야기가 있는 동네기행
김기홍 · 이애란 · 정혜진 글, 이지용 사진 | 10,000원 | 이매진 | 2008.12.22

10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이준범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1.23

11 **이런 사람 만나봤어?**
_ 따로 또 같이 일구는 관악사회복지 이야기
한재랑 · 박영하 · 김의인 · 윤홍용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1.23

12 **무진장의 농업 CEO** _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마을 간사 이야기
노정기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4.17

13 **다 같이 돌자 골목미술관** _ 오늘도 꿈을 꾸는 그림마을 사람들
황성주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4.17

14 **볍씨야, 학교가자**
_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대안교육 이야기
강옥희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5.20

15 **원주발 파리행 페이퍼로드** _ 파리를 유혹한 원주한지 이야기
김진희 · 이선경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5.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6 **우리들의 구로동 연가**
_ 구로공단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사이 월드
구은정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5.20

17 **염리동, 소금마을 이야기**
무지개반사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5.20

18 **슈퍼맨과 콜센터**
_ 익산희망연대와 꿈이 자라는 시민운동
김정필 · 이진홍 · 임형택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5.20

19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_ 우리 동네 곳간을 지키는 예산감시운동
오관영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6.26

20 **검은 땅에서 꿈을 캐다**
_ 태백에서 전하는 한국판 몬드라곤 이야기
원응호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6.26

21 **황톨톨이가 옛날엔 정짓담살이 혔지**
_ 겁나게 재미진 백운 사람들 이야기
정병귀 외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6.26

22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_ 조경으로 일구는 아름다운 풍경목장
안명준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6.26

23 **세 바퀴로 달리는 희망자전거**
_ 정희 쌤과 떠나는 삼덕동 문화 기행
김정희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7.30
•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76차)

24 **세상에서 가장 큰 작은 학교 이야기**
이채연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7.30

25 **체험! 삶의 현장으로 놀러오세요**
_ 깐깐한 송 국장의 교촌농촌체험학교 이야기
송종대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7.30

26 **다산비방 밥상혁명**
_ 사회적 기업 콩새미의 로컬푸드 이야기
국령애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8.14

27 **펄떡펄떡 방어잡는 모슬포 몽생이들**
_ 모슬포 최남단방어축제와 지역다움의 바람
추미경 · 염진영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8.14

28 **인드라망, 지금 여기의 에코토피아**
_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이론, 역사, 현실
이소영 저 | 10,000원 | 이매진 | 2009.8.14

우리시대 희망찾기 | 우리 사회 각 분야를 구술을 통해 정리하고 분석한 새로운 인문학 시리즈

1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유시주 저 | 15,000원 | 창비 | 2007.6.1
- 2007 문화관광부 교양도서(사회과학)
-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2007.8)

2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이원희 저 | 15,000원 | 창비 | 2008.8.1

3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정병호 · 김찬호 · 이수광 · 이민경 저 | 15,000원 | 창비 | 2008.8.1

4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_ 시민활동가 30인에게 듣는다
주성수 · 정규호 · 이선미 · 조성미 저 | 15,000원 | 창비 | 2008.8.1

5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_ 환경미화원에서 변리사까지
이병훈 · 윤정향 · 김종진 저 | 15,000원 | 창비 | 2008.12.26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사회과학)

6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
– 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 풀기
박진섭 · 소병천 저 | 15,000원 | 창비 | 2008.12.26

7 **불멸의 신성가족** _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김두식 저 | 13,000원 | 창비 | 2009.5.15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사회과학)
- KBS '책읽는밤' 2009 올해의 책 (우리시대의 논점 부문)

8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구도완 저 | 15,000원 | 창비 | 2009.11.13

9 **주거신분사회** _ 타워팰리스에서 공공임대주택까지
최은영 · 최민섭 · 남영우 · 강민석 · 천현숙 저 | 15,000원 | 창비 | 2010.4.30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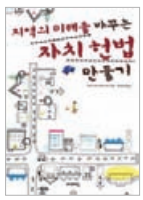
조례연구 | 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을 만든다! 국내외 이색 조례를 소개하는 시리즈

1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 학습법**
후쿠도메 쓰요시 저 | 정선철 역 | 9,000원 | 이매진 | 2008.4.28

2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우치나카 이에스케 저 | 정선철 역 | 9,000원 | 이매진 | 2008.5.13

3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_ 전기성의 조례사랑 이야기
전기성 저 | 10,000원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2008.12.1



1


2


3

뿌리총서 |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모은 대안 시리즈


1


2


3


4


5


6


7


8

1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_ 에코뮤지엄 기행
오하라 가즈오키 저 | 김현정 역 | 15,000원 | 아르케 | 2008.8.12

2 **1% 너머로 보는 지역활성화**
지바 미쓰유키 저 | 서하나 역 | 12,000원 | 아르케 | 2007.6.1

3 **일본형 매혹도시를 만들다**
아오키 히토시 저 | 최민경 역 | 14,000원 | 아르케 | 2007.6.1

4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저 | 이상현 외 역 | 12,000원 | 아르케 | 2007.6.1

5 **소통과 나눔 그리고 새로운 마을** _ 창발마을 만들기
와다 다카시 편저 | 손주희 역 | 15,000원 | 아르케 | 2008.10.23

6 **소호와 함께 마을만들기**
시바타 이쿠오 저 | 서현진 역 | 15,000원 | 아르케 | 2009.11.16

7 **그린투어리즘**
다나카 미쓰루 저 | 권희주 역 | 15,000원 | 아르케 | 2009.11.16

8 **스마트커뮤니티**
호소노 스케히로 저 | 권윤경 역 | 15,000원 | 아르케 | 2009.11.16

공공리더 지혜총서 | 날카로운 통찰,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 우리 시대 공공리더를 위한 정책시리즈



1



2


3

1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희망제작소 엮음 | 15,000원 | 중앙북스 | 2008.1.10

2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리처드 뉴스타드 저 | 이종훈 역 | 15,000원 | 중앙북스 | 2008.1.10

3 **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 _ 지미 카터, 퇴임 후의 삶
지미 카터 저 | 이종훈 역 | 13,000원 | 중앙북스 | 2008.10.6

희망을 여는 사람들 |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진하게 담긴 인간탐구, 지역탐구 시리즈

1 **수십만의 직원을 둔 기업가** _ 토종벌 총각 김대립
김진아 저 | 8,000원 | 푸른나무 | 2007.10.30

2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 _ 김제 남포리의 상록수 오윤택
김경환 저 | 8,000원 | 푸른나무 | 2008.1.2
• 동아일보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20선'

3 **고삐 풀린 망아지 옥천에서 일내다** _ 풀뿌리 언론의 희망 오한흥
정지환 저 | 9,500원 | 푸른나무 | 2008.10.6

4 **백로야, 고라니야 내가 지켜줄게** _ 시화호의 기록자 최종인
이현구 저 | 9,500원 | 푸른나무 | 2008.12.15

5 **나는 현장 사람이다** _ 장성 한마음공동체 대표 남상도
신중철 저 | 9,500원 | 푸른나무 | 2009.7.28

6 **희망은 빛보다 눈부시다** _ 장애 없는 세상 '꿈지기' 송경태
홍임정 저 | 9,000원 | 푸른나무 | 2009.10.8
• 이 책은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로 읽을 수 있습니다

7 **얘들아! 들꽃 피는 학교에서 놀자** _ 안순억 교사와 남한산학교 이야기
강벼리 · 조선혜 저 | 9,800원 | 푸른나무 | 2010.1.27

8 **바보 군수의 희망보고서** _ 완주군수 임정엽
권지희 저 | 9,800원 | 푸른나무 | 2010.5.4

9 **작은 농부의 100년 계획서** _ 오리농법의 선구자 주형로의 농사이야기
김진아 저 | 9,800원 | 푸른나무 | 2010.6.29


1

2

3

4

5

6

7

8

9

커뮤니티비즈니스 총서 |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 총서

1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 정정일 역 | 9,000원 | 이매진 | 2008.10.29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시대**
가네코 이쿠요 엮음 | 김정복 역 | 12,000원 | 이매진 | 2010.4.23


1

2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희망메이커 · 박원순 · 전유성 · 박준형 저 | 11,800원 | 위즈덤하우스 | 2007.10.25

2 **세계를 이끄는 생각**
홍일표 저 | 18,000원 | 중앙북스 | 2008.5.13

3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박원순 저 | 12,500원 | 검둥소 | 2009.4.1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사회과학

4 **다음의 도전적인 실험**
김수종 저 | 15,800원 | 시대의창 | 2009.7.1

5 **현장중심 실용적 지방자치론**
박주원 저 | 25,000원 | 희망제작소 | 2009.8.14

6 **고마워라 인생아** _ 인생 후반을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김수종 저 | 9,800원 | 경향신문사 | 2009.9.28

7 **불만합창단** _ 세상을 바꾸는 불만쟁이들의 유쾌한 반란
김이혜연 · 곽현지 저 | 14,500원 | 시대의창 | 2010.1.15

8 **마을이 학교다**
박원순 저 | 13,000원 | 검둥소 | 2010.6.10

9 **작은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노준형 저 | 14,500원 | 시대의창 | 2010.9.27

10 **태안은 살아있다**
노진철 외 10인 저 | 22,000원 | 동녘 | 2010.12.7

11 **사회적 기업 창업교과서**
야마모토 시게루 저 | 김래은 역 | 14,800원 | 생각비행 | 2011.2.1

12 **사회적 영웅의 탄생** _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 14인을 만나다
박명준 저 | 13,000원 | 이매진 | 2011.1.10

13 **골목에 꽃이 피네** _ 녹색마을사람들의 신명나는 이웃살이 이야기
정외영 저 | 14,000원 | 이매진 | 2011.2.11

※ 희망제작소 북스토어(http://book.makehope.org)를 방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단행본 소개와 다양한 출판 관련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뿌리센터

[조례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지방자치, 이제 조례를 이야기하자 2006.9.14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이제는 자치재정이다 2007.2.28

[농촌희망본부 창립세미나]
농촌부활의 시대를 연다 2007.7.19

[주민참여클리닉 창립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논한다 2007.12.4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1st 참여정부의 전자민주주의 성과와 개선방향 2007.11.29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2nd 세계를 바꾸는 블로그, UCC
_ 한국 전자시민사회형성과 시민저널리즘 2008.3.25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3rd 혼돈과 질서, 네트에서 문화읽기
_ 한국 사이버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2008.4.29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4rd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논한다 2008.5.27

[주민참여클리닉 기획포럼 1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
5th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힘 _ 시민제안의 현황과 전망 2008.6.2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이드북]
살고싶은 우리동네 만드는 32가지 방법 2008.10.22

[지역현안 긴급포럼 1]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 2008.5.22

[지역현안 긴급포럼 2]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2008.5.23

[지역현안 긴급포럼 3]
개발주의와 도시공동체 _ 인천 배다리 상황을 중심으로 2008.6.5

[조례&자치재정 월례포럼]
인수위에 전하는 분권의 목소리 2008.1.17

[자치재정 월례포럼]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쟁점 2008.6.30

[제2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2010.1.26

[제2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진흥 및 법제도 2010.1.26

[창조적인 공원과 정원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도시, 정원을 꿈꾸다 2010.03.11

[2008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찾기 2009.4.9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지역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포럼 2010.11.3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네트워크 파티와 워크숍 2010.11.3

[2010 지역 특성화 과정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자료집 2010.11.15

교육센터

[2007 공무원 주제학교]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교육플래너입니다 2007.3.12

[2007 순천시 공무원학교 자료집]
나는 순천시 희망 Creator입니다 2007.7.13

[2008 순천시 공공디자인학교]
나는 순천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8.4.14

[2009 순천시 녹색시민학교]
우리는 순천시의 희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2009.6.11

[2009 순천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우리는 순천시의 희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2009.6.17

[2009 순천시 커뮤니티비지니스 포럼]
나와 이웃,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 2009.10.29

[2009 순천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워크숍]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해와 적용 2009.12.16

[2008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
나는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리더입니다 2008.9.23

[2008 완주군 공공디자인학교]
나는 완주군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8.10.15

[2008 완주군 지역리더학교 제1기]
나는 완주군 희망일구미입니다 2008.11.6

[2009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워크숍]
주민이 만드는 우리마을 가꾸기 2009.7.7

[2010 완주군 마젤란 호민관 일본 연수]
새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현장을 가다 2010.12.13

[2008 익산시 공공디자인학교]
나는 익산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8.10.21

[2009 화성시 공공디자인학교 1기]
나는 화성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9.3.1

[2009 화성시 공공디자인학교 2기]
나는 화성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9.9.21

[2009 화성시 공공디자인학교 1,2기 종합]
Hwaseong City & Public Design 2009.10.31

[2009 시흥시 공공디자인학교]
나는 시흥시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9.10.20

[2009 남양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우리는 남양주의 희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2009.4.20

[2009 남양주 시민참여행정학교]
교육 자료집 2009.6.30

[2009 통영 이순신 아카데미]
지속가능발전교육 도시 통영! 이순신 리더십으로 2009.1.14

[2010 고양시 간부공무원 조직 변화 워크숍]
나는 고양시 희망 크리에이터입니다 2010.08.10

[2010 고양시 간부공무원 조직 변화 워크숍 결과 보고서]
나는 고양시 희망 크리에이터입니다 2010.08.10

[2010 과천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료집 2010.10.28

[2010 과천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결과보고서 2010.10.28

[2010 수원시 간부공무원 대상 창발적 소통 워크숍]
나는 수원시 희망크리에이터입니다 2010.12.02

[2010 부천시 6급 공무원 대상 창의적 조직 변화 워크숍]
나는 부천시 희망 크리에이터입니다 2010.10.30

[2009 칠곡군 평생학습마을 미래구상학교]
당신이 꿈꾸는 지역사회를 디자인하라 2009.11.19

[2009 강북구 혁신선도 창의역량 강화교육]
교육 자료집 2009.2.27

[2010 도봉구 주민 참여 행정 열린 교육]
나는 도봉구 희망크리에이터입니다 2010.10.30

[2010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준비 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2010.10.30

[2008 공공디자인학교(농촌형)]
공간,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_ 전북 진안, 무주 2008.5.6

[2008 공공디자인학교 기본과정(도시형)]
나는 우리 시 · 군 · 구의 공공디자이너입니다 2008.9.

[2008 공공디자인 유럽연수]
영국, 독일의 도시비전과 미래전략을 통해 배우는 '공공디자인' 2008.9.2

[2009 공공디자인학교]
도시재생을 고민하다 2009.10.28

[2008 간판디자인학교 – 충청남도 아름다운간판 아카데미]
간판은 디자인이다 2008.9.22

[2008 경기도 간판디자인학교 – 옥외광고업자 교육용 자료집]
간판은 디자인이다 2008.11.26

[2009 전라남도 간판디자인학교]
간판은 디자인이다 2009.11.25

[2010 인천시 간판 디자인 클리닉 보수교육]
간판은 디자인이다 2010.09.09

[2010 인천시 간판 디자인 클리닉 실습교육]
간판은 디자인이다 2010.09.14

[2010 인천시 간판 디자인 클리닉 결과 보고서]
간판은 디자인이다 2010.09.09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하는 자치단체장 해외연수 2]
농산촌지역재생의 해법, 일본 그린투어리즘 현장을 가다 2008.11.5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하는 자치단체장 해외연수 3]
저탄소 녹색성장, 일본 도농현장을 가다 2009.4.14

[박원순의 한눈에 시리즈 1탄]
박원순이 한눈에 본 요코하마 2009.1.12

[좋은시장학교 일본 스터디 투어 자료집]
일본의 마을만들기 현장 정보 "듬뿍" 2008.9.29

[2기 좋은시장학교]
입학식 자료집 2009.2.27

[2기 좋은시장학교]
과정 안내서 2009.2.27

[2기 좋은시장학교]
지역 청사진 발표회 자료집 2009.6.15

[3기 좋은시장학교]
2006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모음집 2009.9.1

[3기 좋은시장학교]
교육 자료집 2009.9.18

[4기 좋은시장학교]
교육 자료집 2009.11.13

[모금전문가학교 특별강연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부 2009.4.28

[2기 모금전문가학교]
모금의 날개로 세상을 날다 2009.12.19

2010 지방선거 핸드북 2010.03.12

지방정부 인수위원회 2011.01.31

시니어사회공헌센터

[2007 행복설계아카데미]
NPO,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계로의 초대 2007.9.10

[2008 행복설계아카데미]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희망메시지 2008.3.10

[2009 행복설계아카데미]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희망메시지 2009.4.8

[2007 해피시니어 심포지엄]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2007.11.29

[2008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과제 2008.11.25

[2007 제1차 NPO리더 희망워크숍]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2007.8.28

[해피시니어, 일본 중간지원조직 방문기]
일본시민사회의 꽃, NPO지원센터를 가다 2008.11.25

[2010 영국 시니어 관련 단체 탐방기]
한국 젊은이, 영국 시니어를 만나다 2010.12.10

사회혁신센터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노원구청 · 희망제작소 | 2007.10.25

구청씨, 생각대로 큐!!
노원구청 · 희망제작소 | 2008.7.15

구청씨, 세상을 바꾸는 생생공감 아이디어
노원구청 · 희망제작소 | 2009.7.15

2008 사회창안대회 최종결선 프리젠테이션 쇼 2008.10.8

[사회창안국제회의]
행사 자료집 2008.10.8

[사회창안국제회의]
백서 2008.12.15

[불만합창 페스티벌]
네 불만을 노래하라 2008.10.8

[호민관클럽 현판 · 아이디어 전달식]
행사 자료집 2009.2.10

[소셜디자이너 한 · 일 워크숍]
소셜디자이너, 새로운 사회혁신을 실험하다 2009.10.29

[ANIS 2010]
Asia NGO Innovation Summit Hand Book 2010.09.02

[ANIS 2010]
Asia NGO Innovation Summit Best Practice Compilation 2010.09.02

[온갖문제총서 1]
저 아저씨 이상해요 2010.12.23

소기업발전소

[프로젝트 청춘 비상]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2010.09.11

2010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 축제 2010.11.30

기후 · 환경팀

[글로벌위기와 녹색경제 국제세미나]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2009.10.29

기타

[희망제작소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2006.3.27

[희망모울 7]
한미FTA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06.7.21

[희망모울 9]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2006.9.29

[희망모울 11]
한·일 컨퍼런스 한·일 '지역만들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6.11.21

[우리시대 희망찾기 교육영역 심포지엄]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2007.11.29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2007.12.27

[18대 총선평가 및 대안모색 토론회]
46점짜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 새로운 선거제도, 선거문화 모색 2008.4.24

시티다큐 도시를 기록한다 2006.3.27

[세계공원연구소 창립기념행사]
GReEN FAnTASY 문화로 풀어보는 공원 이야기 2006.9.5

[제4회 공공디자인전 & 세미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가치 2008.11.11

[간판문화연구소 창립기념자료집]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도시 2007.1.30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 자료집]
간판, 디자인을 배우다 2007.8.31

※ 자료집 구매 및 열람 관련 문의는 희망제작소 사무국(02-2031-2192)으로 연락바랍니다. 일부 자료집은 희망제작소 북스토어(http://book.makehope.org)에서도 이용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이사장 김창국 법무법인 양재 대표

이 사 이옥경 (전)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정지강 기독서회 사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윤영각 삼정 KPMG 대표
이청종 (주) 후이즈 대표이사
차지수 PIC 사장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박창기 (주)프락시스 대표
이학영 한국 YMCA사무총장
김일섭 딜로이트회계법인 회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의사
이진민 자연인 대표이사
주철환 전 경인방송 사장

감 사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오현석 가람경영자문 회계사

문승국 고문
김광웅 고문
박경호 고문
천경송 고문
최상용 고문
박원순 상임이사
유시주 소장
윤석인 부소장
김해창 부소장
정건화 부소장
김재현 부소장

사무국
정성원 국장
모희정 연구원
이용신 연구원
권성하 연구원
신영희 위촉연구원

콘텐츠센터
김경환 센터장
이현구 연구원
권태준 연구원
김진수 연구원
유영진 연구원
김경희 연구원
윤석정 위촉연구원

회원재정센터
한순웅 센터장
최문성 연구원

김슬아 연구원
김희경 연구원
김현주 연구원

뿌리센터
홍 선 센터장
김준호 연구원
박상현 연구원
임은영 연구원
박아영 연구원
이혜경 위촉연구원
원대로 위촉연구원
김지헌 위촉연구원

비비정마을
소영식 연구원
송상민 위촉연구원
이찬미 위촉연구원

교육센터
송창석 센터장
송정복 연구원
이대연 연구원
최영인 연구원
이민영 연구원
나 래 연구원

시니어사회공헌센터
남경아 센터장
김두선 팀장
임성미 선임연구원

정선영 선임연구원
김돈회 연구원
석상열 연구원

소기업발전소
문진수 소장
조우석 연구원
이재홍 연구원
배민혜 위촉연구원

희망수레
이은주 연구원
양지혜 위촉연구원

사회혁신센터
곽현지 팀장
임소정 연구원
이성은 연구원
한선경 연구원
유미혜 위촉연구원
박성호 위촉연구원

일본 희망제작소
안신숙 연구위원

박승주 객원연구위원
김수종 객원연구위원
이태규 객원연구위원



지난 5년 동안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하고 지켜봐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더욱 깊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자세로
우리 시대 희망의 근거지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ANNUAL REPORT 2010

2010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1년 3월 27일 **발행인** 김창국 **편집인** 박원순
책임편집 김경환 이현구 윤석정 **사진** 정재석 하규운 **제작** 화소
희망제작소 (우)110-847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www.makehope.org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도와주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 금천구청 · 도봉구청 · 서대문구청 · 성북구청
경상남도청 수원시청 아산시청 오산시청 완주군청 정읍시청 화성시청
영화공간주안

성북동
역사·문화 올레 여행

••• 성북의 민족 · 역사 · 문화 자원 여행

내 고장 성북을 알기 위한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마코스, 관광비틀맵, 여행수첩, 스마트폰 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북구의 우수한 역사 · 문화 자원을 탐방해 봅시다.

••• 여행수첩 제작

성북구의 소중한 추억을 기념 스탬프와 인증샷으로 영원히 간직하세요!

여행수첩은 성북구 역사문화 명소 16곳을 간편한 여권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첩에는 각 명소의 특성을 살린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은 인증샷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고장 바로 알기 현장 학습 프로그램 연계

우리 고장의 생활(3학년), 서울의 생활(4학년) 과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여행수첩을 12,000부 제작하여 성북구내 초등학교3, 4학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성북구청 · 성북교육지원청 간 MOU협약 체결)





향후 여행 완주자에게는 성북구 문화 · 공연 · 체육 시설 관람권이나 명소 주관 기념품 등을 증정합니다.

sb성북구청 문의 : 문화체육과 920-3051

이젠 와일드하게 즐겨보자!

2011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2011. 9. 23 ~ 9. 25 (3일간)

완주군 오토캠핑장 및 고산휴양림일원

행사내용 : 음식체험(야생음식, 별난음식, 향수음식),
와일드문화체험, 천렵체험, 화덕·그스름체험,
와일드식물동물농장체험, 민속놀이체험 등

연계행사 : 무궁화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그스름 체험


미꾸라지잡기 체험


메뚜기잡기 체험


밤 굽기 체험


메뚜기 볶음 만들기